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신앙과 직제위원회, 2012년 말레이시아 페낭

우리가 공동체적 친교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함께 투쟁하며 과거와 현재에서 우리가 처한 분열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출판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서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작업을 위해 기독교의 여러 전통과 문화권에 속한 신학자들이 가장 광범위한 규모로 동참하였다. 이 문서는 우선 교회의 사명과 일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생명 안에 있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 다룬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 친교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다룬다.

서문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라는 의견수렴 문서는 기독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다음의 성서적 비전과 직결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2-13).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이로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공동의 삶과, 세상을 향한 증거와 섬김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성만찬적 공동체를 통한 가시적 일치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그러한 일치를 향하여 전진함으로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이다”(2012년 부칙조항).

이렇듯 가시적 일치를 향한 상호 독립의 목표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교회로, 즉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말하는 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의 참된 표현으로서의 교회임을 인정하는 상호 인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분열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각각의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나름으로 숙고하다 보니 교파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교회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러한 다양한 교회론은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서로 조화될 수 없다는 인식이 짝트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론에 관한 합의야말로 기독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목표임이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이 문서는 신앙과 직제에 관한 두번째 의견수렴 문서로서, 첫번째 문서인 <세례, 성만찬, 직제>(1982)와 이에 대한 공식 반응들—여기서는 추후 더 연구되어야 할 교회론의 주요 영역들을 지목하고 있다—로부터 나온 것이다.¹⁾ 아울러 이 문서는 연구 문서인 <하나의 세례: 상호 인정을 향하여>(2011)에서 제기된 교회론적 질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동안, 정교회, 개신교회, 성공회, 복음주의교회, 오순절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에서 파견한 대표들은 신앙과 직제에 관한 세계대회(1993), 3차에 걸친 신앙과 직제위원회 본회의(1996, 2004, 2009), 18차에 걸친 상임위원회 회합과 술한 사전 모임에 참석하여, 교회의 본질과 목적 및 사명에 관한 글로벌하고 다각적이며 에큐메니칼인 비전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 교회들은 공동 선언을 향한 여정 중 지나온 두 단계의 성과에 대해 반응하면서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인 자세를 갖고 임하였다. 이 교회들에게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일종의 공동 선언 내지 의견수렴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를 내어놓는다. 이 문서에서 나타나는 바, 지금까지 도달한 합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에서 보기드문 성과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연구와 공식 반응을 위하여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를 각 교회들에게 배포함에 있어 적어도 서로 구분되지만 상호 깊이 연관되는 두 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번째 목표는 갱신이다. 이 문서는 다각적인 성격을 지닌 에큐메니칼

1) *Baptism, Eucharist & Ministry, 1982-1990: Report on the Process and Responses*, Faith and Order Paper No. 149(Geneva: WCC, 1990), 147-151. 박근원 옮김, 『세례, 성만찬, 교역』(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3) 참조.

문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교회론적 전통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교회들의 신학적 표현과 교회적 경험의 한데 모아졌으므로 어떤 교회들은 이 문서를 읽으면서 교회의 삶을 더 충만히 살도록 자극받게 될 것이고, 다른 교회들은 이 문서 속에서 교회의 삶과 인식 중에서 이제껏 무시하거나 망각했던 측면을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교회들은 자기들의 입장이 더 강화되고 확증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을 경험해갈수록,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더욱 가까워지는 가운데, 성서가 말하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두번째 목표는 교회에 관한 신학적 합의이다. <세례, 성만찬, 직제>에서 보여지듯,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거두었던 의견수렴의 성과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서에 대한 공식 반응의 과정이었다. 이 반응을 담고 있는 6권의 방대한 보고서가 출간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례와 성만찬과 직제라는 주요 주제들에 대해 각 교회들 간에 도달한 합의문들의 수준이 참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세례, 성만찬, 직제>에서 드러났듯이, 기독교의 일치에 향한 교회들 간의 의견수렴이 가져온 효과들은 잘 기록, 보존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에 대하여 각 교회들이 보내게 될 반응들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도달한 의견수렴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나타내줄 뿐 아니라 교회론에 대하여 교회들 간에 도달하게 된 합의의 수준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례, 성만찬, 직제>에 대한 반응을 통해 도출된 세례에 대한 의견수렴이 세례에 관한 상호 인정을 향한 여정에 신선한 추동력을 부여해주었던 것처럼, 교회론의 분야에서도 교회들 간에 도달하게 될 유사한 합의가 교회들 간의 상호 인정에서 요긴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로써 교회들이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성만찬적 공동체를 통한 가시적 일치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독려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교회들의 반응”을 보낼 이들 중에는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속하거나 WCC 회원 교회들이 포함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새롭게 나서는 교회들도 이 초청에 응하여 이 문서를 연구하고 논평을 보내줄 것을 희망한다. 신앙과 직

제위원회는 또한 여러 에큐메니칼 기구들이 보내는 반응도 환영한다. 이에는 각국 내지 각 지역 차원의 여러 교회협의회들과 “교파별 세계연합체”(Christian World Communions)가 포함된다. 특히 후자를 통하여 여러 교회들이 진행하는 공식 대화들은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에 나타난 의견수렴에 도달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각 교회들이 이 문서를 검토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인도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질문들은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의 서론 말미에 들어 있다. 이 문서에 대한 연구와 반응을 촉발하기 위해 제기된 질문들은 신학적이고 실천적임과 동시에 목회적인 것들이다.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이 문서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늦어도 2015년 12월 31까지 WCC 신앙과 직제위원회 사무국 앞으로 발송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어언 20여 년이 걸렸다. 많은 이들의 수고와 기도와 신학적 은사의 토대 위에 이 문서가 세워질 수 있었으므로, 신앙과 직제위원회 위원들, <교회의 본질과 목적>(1998) 및 <교회의 본질과 선교>(2005)에 반응을 보내준 교회들과 신학자들, 신앙과 직제위원회 사무국에서 사역하는 회원들과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역대 의장단, 총무들로서 섬겼던 회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무

존 지보 신부(Canon John Gibaut)

신앙과 직제위원회 의장

콘스탄짜야-아모코스토스 수좌주교 바실리오스 박사

(Metropolitan Dr Vasilios of Constantia-Ammochostos)

서론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수많은 신자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말로 매일 기도한다. 예수께서도 체포되기 직전 겹세마네 동산에서 비슷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마 26:39-42, 막 14:36, 눅 22:42 참조).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성부께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향한 뜻을 나타내셨으니, 곧 그의 모든 제자들이 하

나가 됨으로 이로써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이었다(요 17:21).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함은 이러한 일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일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진심 어린 노력을 요청하게 마련이다. 교회들은 주님이 주시는 친교의 은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는 여하한 장벽을 극복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는 많은 이들이 보기에 그중에서도 가장 지난한 문제를 거론하는바, 그것은 바로 교회 자체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사이자 목표로서 교회 일치가 지닌 중차대함이 이하의 단락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이 지닌 중요성을 밝히 드러낸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완전한 의견 일치를 표명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순히 추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도구적 수준은 넘어서는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들 상호 간의 인식에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지금까지 이룩한 진전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를 지적해준다. 이 문서는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다듬어낸 것으로서, 위원회의 목적은 전체 WCC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이로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공동의 삶과, 세상을 향한 증거와 섬김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성만찬적 공동체를 통한 가시적 일치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그러한 일치를 향하여 전진함으로써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이다”¹⁾ 이러한 가시적 일치는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에서 가장 감명 깊게 드러난다. 이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는 세상의 변혁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케 된다. 이 문서는 최근 수년 동안 교회론의 주제에 관하여 여러 교회들이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보내준 의견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동의 성찰에 바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던 이전의 에큐메니칼 문서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주님이 주시는 일치의 은사가 성령의 인도 하에 충만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이렇듯 이 문서는 다자간의 차원에서 진행된 대화, 특히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라는 문서에 대

1) L. N. Rivera-Pagán, ed., *God in Your Grace: Official Report of the Nin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Geneva: WCC, 2007), 448.

해 여러 교회들이 보낸 의견과 더불어, 2009년 크레테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제안들 및 2011년 키프러스에서 열린 정교회 회담의 성과를 취합한 결과물이다. 이에 더하여, 이 문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주제에 관련하여 진행된 다양한 양자간의 대화들을 통하여 진척된 성과에 의거하고 있기도 하다.²⁾

우리는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교회들을 섬기게 되기를 희망한다. (1) 주요 교회론적 주제들에 대하여 최근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에큐메니칼 대화의 결과물들을 일별하는 하나의 종합을 제공함으로써, (2) 이렇듯 대화의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긍정적인 성과물을 평가하는 일에 교회들을 초청함과 동시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한 지금껏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영역을 표시함으로써, (3) 교회들이 보다 큰 일치를 향해 나아가도록(엡 4:12-16)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회론적인 이슈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의 구속적 변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어떻게 그 기원을 찾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이며, 일치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일치와 관련된다. 제2장에서는 교회를 친교라고 이해하는 것이 지니는 뚜렷한 특징에 대해 상술하면서, 성서와 이후의 교회 전통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지, 교회의 삶과 구조에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공동으로 성찰한 결과물을 수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인 백성으로서 교회의 성장에 관한 주제, 특히 과거에 교회들을 분열시켰던 몇 가지 교회론적 난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자 대행자인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관계 맺는 몇 가지 유의미한 방식들을 제시한다. 예컨대 다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라든가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증언하는 일 또는 인간의 고통과 필요에 부응하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1982년에 발행한 <세례, 성만찬, 직제>에 대해 보내준 많

2) 이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이 문서 말미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을 볼 것.

은 공식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합의문이 출판된 후에 뒤이은 수용의 과정이 그 문서의 출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³⁾ 교회론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촉매제가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이들이 교회론의 발전에 유의미한 공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를 진지하게 고려할 뿐 아니라 다음에 제시된 질문들에 비추어 이 문서에 대한 공식 반응을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 이 문서는 당신의 교회가 파악하고 있는 교회론적 인식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가?

- 이 문서는 교회들이 서로 일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일에 어느 정도로 공헌하고 있는가?

- 이 문서는 당신의 교회가 교회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적응과 갱신을 이루도록 도전을 주고 있는가?

- 당신의 교회는 이 문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교회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교회들과 생활 및 선교에서 한층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 교회의 생활에서 어떠한 측면이 추후 더 논의될 수 있겠는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교회론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당신의 교회는 어떠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일반적인 질문에 덧붙여서, 독자들은 아직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특정한 쟁점이 본문 전체에 걸쳐 산재된 이탤릭체로 표시된 단락들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질문들은 일치를 향한 도상 중에 있는 여러 교회 간에 성찰을 촉구하고, 보다 진전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삽입된 것이다.

3) M. Thurian, ed., *Churches Respond to BEM: Official Responses to the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Text*,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vols. I-VI, 1986-1988;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1982-1990: Report on the Process and Responses*(Geneva: WCC, 1990).

I.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일치

A. 하나님의 구상 안에 있는 교회

1. 교회와 그 사명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모든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상(즉 경세)이라는 비전 안에 뿌리박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약속되고 또 그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성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창 1:26-17 참조), 하나님과 교통(그리스어, 코이노니아)할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교통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으며(창 3-4장, 롬 1:18-3:20 참조),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및 창조 질서 사이의 관계가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함을 지키셨다.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파스카(십자가-부활)의 신비 안에서 결정적인 성취를 거두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활동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생명 살림의 선교를 예언과 긍휼의 사역 속에서 지속해나가며, 이로써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공동체적 친교의 원천은 성삼위가 지니신 생명 그 자체이므로, 공동체적 친교는 교회가 살아가도록 하는 은사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화해와 치유의 희망 안에 교회를 부르시어 상처입고 갈라진 인류에게 나누어주라고 명하신 선물이기도 하다.

2.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마 9:35-36). 그리스도는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남성들과 여성들을 불러서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요 20:19-23). 교회는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신 행동과 언약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러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네 복음서가 모두 선교적 위임으로 마감

된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막 16:15, 눅 24:45-49, 요 20:19-21 참조)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이러한 분부 속에 교회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이미 암시되어 있다. 교회는 예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의 믿음으로 초대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 교회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새로운 지체들을 입교시키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 교회는 제자직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며 주님의 만찬을 집례하는 가운데, 새로운 신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몸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었다.

3. 성령은 오순절날 아침에 제자들 위에 강림하셨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시작하도록 능력을 갖추어 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행 2:1-41).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말은 이따금씩 라틴어 *missio Dei*,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로 표현된다.)은 성자와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듯 성삼위의 구원활동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출간한 연구 문서인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믿고 고백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현실 간에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가 증언하는 바이다. 교회의 근원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뿌리박고 있다.”¹⁾

4.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풀어주며, 눈 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셨다(눅 4:18-19, 사 61:1-2

1) *Confessing the One Faith: An Ecumenical Explication of the Apostolic Faith as It Is Confessed in 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 (381)*(Geneva-Eugene: WCC-Wipf & Stock, 2010), 216.

의 인용 참조).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소명의 핵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시작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자리하고 있다. 성찬 예배와 감사기도와 중보기도와 같은 교회의 내적 생활을 통하여, 선교와 복음전도를 계획하는 것을 통하여,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매일의 생활 양식을 통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세력과 결연하게 맞서 싸우는 것을 통하여, 교회들은 이러한 복음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

B.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의 선교

5. 교회는 시초부터 말씀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 특히 성만찬을 거행하는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늘 헌신하여 왔다. 이러한 교회의 수고가 때로는 쓰라린 반대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이따금씩 반대자들의 훼방뿐 아니라 심지어 사역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배반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포의 사역은 커다란 열매를 거두었다(막 4:8, 20, 26-32 참조).

6. 교회가 이제껏 직면해온 과제는 복음선포를 듣는 사람들을 둘러싼 상이한 상황과 언어와 문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파구스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지역의 토착 신앙체계와 문학적 자료들을 이용하였다(행 17:22-34). 이 사례는 제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청중의 문화적 유산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 그것을 변형시켜 가면서, 그들이 속한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는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실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매번 그 선교적 지평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행 1:8 참조) 확대하여 왔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종종 박해로

2) “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ical Affirmation,” 6, in Matthey, e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Statements on Mission b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Geneva: WCC, 2005), 8.

비화되곤 하였으나, 이는 또한 신앙의 확산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였다. 때때로 복음선포를 받는 이들의 문화적·종교적 유산들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음화에 종사하는 이들이 제국주의적 식민화 정책과 결탁한 경우가 그러하였으니,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민족들이 이로 인해 약탈당하거나 심지어 말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성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과 친구들이 일어나고 풍성한 다양성을 지닌 여러 문화권 속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단일한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일치성 안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다양성을 두고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바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엡 5:27, 계 21:2 참조).³⁾ 이전에 외국 선교사들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오늘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을 돕는 일에 신자들을 파견할 만큼 성숙하기에 이르렀다.⁴⁾

7. 오늘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은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몇 가지 상황 전개가 교회의 선교와 자기 이해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에서 예수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타종교의 권리주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심화시키도록 도전받고 있다. 통신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교회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설립, 유지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머징 교회들”은 교회 됨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면서 오늘날의 필요와 관심에 대해 그저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교회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세속 문화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약진함에 따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삶이란 굳이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충족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신앙의 성립 가능성 자체를 의문시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몇몇 지역에서 교회는 등록인원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보기에 교회는 그들의 삶에 더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3) 이 사례에 대해서는, Augustine, “Ennarrationes in Psalmos,” 44, 24-25, in J. P. Migne, *Patrologia Latina* 36, 509-510을 볼 것.

4) 이러한 상호 원조를 통한 연대는 개종전도(proselytism)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개종전도란 다른 기독교 공동체를 개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태도이다.

여전히 재복음화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모으고 있는 정도이다. 모든 교회는 특정 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도전들에 맞닥뜨려 복음화의 과업을 함께 걸머지고 있다.

C. 일치의 중요성

8. 기독교의 일치가 교회의 사명과 본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신약성서 안에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1-2장을 살펴보면,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긴장을 초래하여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열을 일으킬 지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면에서 현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맨 처음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경험을 재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문서는 예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간구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과 신학자들과 신자들이 예수께서 원하신 그러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도록 초청하려는 것이다(요 17:21 참조).

9. 가시적인 일치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교회들이 서로 상대방 안에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가 진정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인정은 결국 어떤 경우에는 특정 공동체가 교리나 관행이나 목회에 있어 일정한 변화를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일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의미심장한 도전을 나타낸다.

10. 현재,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와 배타적으로 동일시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자기들이 속하지 않은 공동체 안에도 참된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본다. 또 다른 이들은 예배의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상호 계약관계를 맺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란 기독교적 성격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모든 공동체 안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비가시적이며, 지상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그것을 적절하게 분별해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⁵⁾

5) 성공회-루터교 간 보고서 “Growth in Communion,” in J. Gros, FSC, T. F. Best and L. F.

일치의 길을 둘러싼 근본적인 쟁점

1950년 토론토 선언 이래로, WCC는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하는 것은 자신들의 교회 조직에 소속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것임을 인정”하도록 촉구해 왔다. 더 나아가 에큐메니칼 차원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교회들 간의, 또 그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에 대해 크게 장려하였고 이에 따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으므로 이것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이 교회의 일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서는 교회들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숙고하는 가운데, 공동의 해답을 찾도록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⁶⁾

II.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

A.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11.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서가 규범이라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서의 증언은 교회에 관한 진전된 합의에 도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원천적 자료를 제공한다. 비록 신약성서에서 체계화된 교회론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 초기 공동체의 신앙과 그들의 예배 및 제자적의 실천, 봉사과 지도력을 감당했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보도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Fuchs, SA, eds., *Growth in Agreement III: International Dialogue Texts and Agreed Statements, 1998-2005*(Geneva-Grand Rapids: WCC-Eerdmans, 2007), 375-425 참조. 이 문서에서는 성공회-루터교 간의 중요 지역 협약으로 마이센(Meissen), 루아얌(Reuilly), 워털루(Waterloo) 등을 언급한다.

6) 따라서 이 문서는 WCC 포트 로 알레그레 총회에서 나온 일치에 관한 선언문, <하나의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Called to Be One Church)에 근거하여 세워지기를 희망한다. 이 선언문에는 “교회들로 하여금 일치의 추구를 위한 투신을 갱신하고 상호 간의 대화를 심화시키도록 요청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Growth in Agreement III*, 606-610). “Final Report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Orthodox Participation in the WCC,” Section III, 12-21, in *ER 55. 1* (January 2003), 7-8을 볼 것.

드러내는 데 사용한 이미지와 은유도 엇볼 수 있다. 이후에 나온 교회의 성서 해석은 항상 성서적 교훈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역사의 변천과 더불어 교회론에 관한 풍부한 견해를 덧붙여왔다. 제1세대 공동체로 하여금 영감된 성서 본문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이후 세대가 복음에 충실하도록, 매 세대마다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이 뜻하는 바이다.¹⁾ 대부분의 공동체는 전통이 지닌 이러한 중차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에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2. 매우 다양한 교회론적 견해를 신약성서의 여러 책들과 이후에 나온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약의 정경은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함으로써, 교회론적 다양성이 교회의 단일성과 양립가능한 것임을 입증한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다양성이라 해도 거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²⁾ 바람직한 다양성이란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회가 지닌 보편성(catholicity)의 한 측면이다. 즉 다양성이란 성부께서 품으신 구원 계획—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성육신적인 것이며 복음선포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혈육을 취하여야” 한다는 구상—의 일환으로서 보편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특성인 것이다. 교회가 가진 신비성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이미지와 견해(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전, 포도나무, 양무리, 신부, 권속들, 병사들, 친구들 등)를 적절히 이용하며 서로 견주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서는 성서에 나타난 풍부한 증언과 아울러 전통에서 유래하는 견해에도 의거하고자 한다.

1) 신앙과 직제위원회 제4차 세계대회가 “Scripture, Tradition and Traditions(성서와 전통과 전통들)”에서 지적하듯이, “대문자로 표기된 전통(the Tradition)이란 복음 자체를 의미한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의해 세대마다 전수되어 온 것으로 교회의 삶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소문자로 표기된 전통(tradition)이란 말은 전승의 과정을 뜻한다. 전통들(traditions)이란 용어는 … 다양한 표현 형태와 우리가 교파적 전통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동시에 가리킨다.” P. C. Roger and L. Vischer, eds.,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Montreal 1963*(London: SCM Press), 1964, 50. 아울러 *A Treasure in Earthen Vessels: An Instrument for an Ecumenical Reflection on Hermeneutics*(Geneva: WCC, 1998), 14–37, 14–26도 참조.

2) 이 주제는 이하의 단락(§§28–30)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B.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코이노니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주도권

13. 교회가 생겨나도록 불러내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요 3:16) 또한 성령을 보내 시어, 그를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요 14:26 참조).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삶과 일치성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치의 추구가 전제하는 것은 친교란 단지 기존의 교회들이 현재 자신들이 지닌 형태 그대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이노니아”(교통, 참여, 친교, 나눔)라는 명사는 “어떤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함께 나누다”, “참여하다”, “동참하다”, “함께 행동하다”를 뜻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주의 만찬에의 참여(고전 10:16-17),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간의 화해(갈 2:7-10),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보(롬 15:26, 고후 8:3-4) 및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체험과 증언 등을 보도하는 단락들에서 나타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친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그 자체의 본질상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창조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느바 그러한 친교에 대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았다.

14. 교회는 복음, 즉 성부의 아들이시며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그 핵심과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사실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확증의 말에 반영되어 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복음의 선포를 들음으로(롬 10:14-18)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고전 12:3), 인간은 구원케 하는 믿음에 이르며, 성례전적(성사적) 방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다(엡 1:23). 어떤 공동체는 이러한 가르침에 의거하여 교회를 두고 크레아뚜라 에반젤리(creatura evangelii) 즉 “복음의 피조물”이라고 부른다.³⁾ 교회의 삶

3) J. Gros, FSC, H. Meyer and W. G. Rusch, eds., *Growth in Agreement II: Reports and Agreed Statements of Ecumenical Conversations on a World Level, 1982-1998*(Geneva-Grand Rapids: WCC-Eerdmans, 2000), 495-498에 실린,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교회와 칭의(Church and Justification)” 중 “복음의 피조물인 교회(The Church as ‘Creature of the

을 규정하는 하나의 측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으며 교회의 여정을 안내하는 길잡이를 늘 새롭게 발견한다.

15. 하나님의 어머니(테오토코스)인 마리아가 예수의 수태고지를 알려주는 천사의 메시지에 대해 보여준 반응—“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을 위한 상징이자 모범으로 여겨져 왔다.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간행한 연구 문서인 <교회와 세계>(1990)는 마리아를 가리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충만한 차원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중요한 모범으로 주목한다. 이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반응하는 것과(눅 1:26-28), 복음의 기쁨을 엘리사벳과 나누는 것과(눅 1:46-55), 예수의 강생과 유년시절을 둘러싼 여러 사건을 묵상하며 겪는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과(마 2:13-23, 눅 2:19, 41-51), 제자직이 함축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과(막 3:31-35, 눅 18:19-20),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곁을 지키다가 그의 몸을 따라 무덤에까지 이르는 것과(마 27:55-61, 요 19:25-27), 제자들과 함께 기다리다가 그들과 더불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는 것(행 1:12-14, 2:1-4)을 말한다.⁴⁾

Gospel)의 단락을 볼 것. 여기서 마르틴 루터의 표현, “교회는 복음의 피조물이다(Ecclesia enim creatura est evangelii)”를 언급한다(WA 2, 430, 6-7). 몇몇 양자간 대화도 동일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라틴어 creatura verbi(말씀의 피조물)를 사용하곤 한다. “Two Conceptions of the Church”(94-113)에서는 교회를 “creatura verbi”라고 묘사하며, 개혁신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대화인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Church”에서는 교회를 “은총의 성례전/성사(sacrament of grace)”라고 묘사한다(*Growth in Agreement II*, 801-805). 위의 1장 6번 각주에서 언급한 성명서 <하나의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Called to Be the One Church)도 참조.

* 옮긴이 주: 이 문장은 프랑스어 원문과 상이함. [따라서 프랑스어 번역을 따라서 번역함] 이어서 프랑스어 번역에는 없는 문장 두 개가 삽입되어 있다. “교회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측면은 성령이다.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이로써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신실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성부와의 살아 있는 관계에 참여한다. 성서가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교회 됨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왔다.”

- 4) 신앙과 직제위원회 보고서, *Church and World: The Unity of the Church and the Renewal of Human Community*(Geneva: WCC, 1990), 64를 볼 것. 또한 성공회-로마가톨릭 간의 국제위원회 보고서, “*Mary: Grace and Hope in Christ*”도 참조할 것(*Growth in Agreement III*, 82-112).

16. 그리스도는 성부께 기도하시기를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주소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셨으며(요 15:26, 16:13), 성령은 믿는 이들에게 사람에게 신앙을 비롯한 여타의 은사들을 내려주실 뿐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필수적인 은사와 자질과 질서를 갖추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복음을 선포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여, 성례전적 친교, 그중에서도 특히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고 섬김의 사역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예 영적 자양과 생기를 더하여 주신다.

예언자이자 제사장이며 왕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17.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 자신을 위하여 한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셨다. 예언자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 겔 37:27, 고후 6:16, 히 8:10)와 같은 강력한 언명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과 소명을 자주 상기시켰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구원 계획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서로 간에 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및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그리스도가 창설한 언약 안에는 진정한 새로움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지키실 것이며,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상 안에서 첫 계약의 백성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롬 11:11-36).

18.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갔다. 그리스도께 귀의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장벽을 무너뜨리셨을 때(엡 2:14)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벧전 2:9-10). 믿는 자들은, 몸소 한 번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새로운 계약을 세우신(히 9:15)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장직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

아울러 프랑스어권 개혁신교회와 로마가톨릭 신학자들의 친교 모임인 돔브 그룹(*la Groupe des Dombes*)의 보고서, *Mary in the Plan of God and in the Communion of Saints (1997-1998)* (Mahwah, N.J.: Paulist Press), 2002도 참조.

진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소명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선교에 자기 몫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성령으로부터 받는다. 이러한 은사들은 공동의 선을 위하여 주어지며(고전 12:7, 엡 4:11-13) 삶의 모든 차원에서 임무와 상호 책임의 의무를 각 개인과 지역 공동체와 전체 교회에 부과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견고케 되어 다양한 형태의 섬김을 통해 그들의 제자직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았다.

19.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지니는 예언자적 백성이자, 제자직을 통해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사제적인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섬기는 왕 같은 백성이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소명에 동참한다. 예수는 열두 명을 불러 파송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 공동체의 지도력을 위한 기초를 놓으셨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모범에 충실하게 일찍부터 믿는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선발되어 특별한 권위와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전을 거행하며, 예배와 선교와 돌봄의 사역을 통하여 공동체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⁵⁾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안수를 받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의 일원이다.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도 교회의 일치와 선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사역의 현장이자 대상이 되는 교회가 없이 자신들의 소명을 실현할 수는 없으므로,* 목회자들에게는 교회의 인정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20. 상이한 전통에 속한 교회들 사이에도 사역의 필수적인 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일치가 있다. 이 점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발행한 <세례, 성만찬, 직제>(1982)에서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바, 이 문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보내시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셨음에 주목하면서, “교회에 특별한 권위와 임무를 맡은 이들이 결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힌

5)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section on Ministry(Geneva: WCC, 1982), 13.

* 옮긴이 주: 프랑스어본 참조.

다.”⁶⁾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은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구성원 중 몇몇 사람이 수행하도록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과 성례전과 감독의 사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목회의 삼중적 기능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⁷⁾ 최근의 성명서들은 하나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왕적 사제직(벰전 2:9)과 특수한 안수 사역이 둘 다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호 배타적인 선택사항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공동체에서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회들 간에 의견이 갈린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 과업이 안수받은 목회자들에게 한정된 반면에, 다른 교회들은 그러한 결정 과정에 평신도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

21. 그리스도는 그의 몸 된 교회의 변함없으신 머리로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치유하신다(엡 5:26). 동시에 그리스도는 교회와 친밀하게 연합하여 계시며, 성령을 통해 교회 전체에 생명을 주신다(롬 12:5, 고전 12:12).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데 기본적인 조건이다(롬 10:9). 기독교에 속한 대부분의 전통들은 사람들이 입문의 예식 내지 성례전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주님의 만찬에서 그의 몸에 참여함이 거듭해서 갱신된다(고전 10:16). 성령은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수여하시며 지체들 간에 일치를 이

6) 위의 책, section on Ministry, 9.

7) 개혁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Church,” §132, in *Growth in Agreement II*, 810. 또한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보고서, “Ministry in the Church,” §17, in H. Meyer and L. Vischer, eds., *Growth in Agreement: Reports and Agreed Statements of Ecumenical Conversations on a World Level* (Ramsey-Geneva: Paulist-WCC, 1984), 252-253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신약성서는 여러 직제들로부터 그리스도가 파송하신 사도들을 계승한 상임/항존직으로 이해되는 특별한 직제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특별한 직제는 공동체 내의 지도력을 위해 필요함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신약성서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심으로써 세우신 ‘특별한 직제’가 당시에도 필요했을 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감리교-로마가톨릭 간 대화 보고서, “Toward a Statement on the Church”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제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있다(*Growth in Agreement II*, 588, §29 참조).

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롬 12:4-8, 고전 12:4-30).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들을 갖추시고 부르시며,⁸⁾ 이로써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김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교회를 일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 관련시키지만, 심층적으로는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증언하는 것과 같이 성령과의 관련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생한 실례는 오순절날 아침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강림한 사건에 대한 보도이다(행 2:1-4).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믿는 이들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엡 2:21-22),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벧전 2:5).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배와 증거와 섬김을 통해 부르심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며, 평화의 띠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부름 받았다(엡 4:1-3). 성령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 만물의 변형(변화:transformation)을 선포하며 그것을 이룩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활력을 주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롬 8:22-23).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인 교회

22.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제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열린 이래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예전에 교회가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임을 고백하는 신조를 포함시켜 왔다. 이와 같은 교회의 4가지 속성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참조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자 믿는 자들의 인간적인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천하도록 늘 부르심을 받는 사명이기도 하다.

• 교회가 하나인 것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요 17:11, 딤후 2:5 참조). 따라서 사도적인 신앙도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도 하나이고, 교회가 품는 소망도 하나이다.⁹⁾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세

8) *The Lutheran-Roman Catholic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0), §15.

* 옮긴이 주: 영어 본문이 애매하여 프랑스어 번역을 참조하여 번역함. “...mais qui s’informent mutuellement et sont liés les uns aux autres...”

9) “Called to Be the One Church,” §5, in *Growth in Agreement III*, 607 참조.

상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며(요 17:20-21 참조)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셨다(고전 12:12-13 참조). 교회 자체 안에 또 교회 서로 간에 나타나는 작금의 분열은 이러한 일치성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러한 분열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를 통해 반드시 극복되므로 분열과 배제가 마지막 파국으로 치닫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¹⁰⁾ 하지만 이러한 모든 분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의 복음 안에 세워졌다고 믿으며(갈 1:5-9 참조), 교회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많은 공통된 특징을 통해 연합되어 있다(엡 4:4-7 참조).

-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사 6:3, 레 11:44-45 참조). 예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사 물로 씻어 말끔으로 깨끗케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이로써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엡 5:25b-27).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성은 거룩한 남성들과 여성들 및 교회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모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통해 증거되어 모든 세대에 걸쳐 증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룩성에 모순되고 교회의 본질과 소명에 역행하는 죄가 믿는 자들의 삶을 거둬서 훼손시켜 왔다. 이런 까닭에 교회의 거룩성은 한편으로 교회가 사람들을 회개와 갱신과 개혁으로 불러내는 지속적인 사역의 일환이기도 하다.

- 교회가 보편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딤후 2:4)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 때문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교회의 선교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성만찬의 집례하는 것에서 드러나듯,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비가 현존하는 곳에 교회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Ignatius of Antioch, *Letter to the Smyrneans*, 6 참조). 문화차이를 비롯한 여타의 차이점들이 분열로 이어질 때, 교회의 본질적인 보편성이 훼손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에 내려주신 이러한 진리와 생명의 충만함을 구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도록 부름 받았다.

- 교회가 사도적인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10) 위의 글.

성자는 이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선택하여 파송하고,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주춧돌들이 되어 섬기며 교회의 선교를 감독하도록 하셨다(엡 2:20, 계 21:14, Clement of Rome, *Letter to the Corinthians*, 42 참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와 같은 사도적 기원에 늘 충실하도록 부름받았기에, 예배, 증거, 섬김에 있어 충실치 못함은 교회의 사도성에 모순된다. 사역의 사도적 계승은 성령의 인도 하에 교회의 사도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¹¹⁾

23. 앞의 단락들(13-22)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단지 신자 개인들이 자기들 간에 결성한 총체가 아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친교이자 그와 동시에 그 구성원들이 모든 친교의 근원이자 중심이 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의 교제인 것이다(벧후 1:4 참조). 이렇듯 교회는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실재(reality)인 것이다.

24.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인간적인 것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라는 것에 대해 공통의 확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 간에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활동이 제도적 구조 및 사역의 직제(ministerial order)와 연관되는 방식에 대해서 상이한 감도(感度) 내지는 대조적인 주장마저 드러나고 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지닌 직제의 몇 가지 본질적인 측면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의도하고 제정하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러한 구조들을 변경할 만한 권위가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또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교회의 직제는 한 가지 형태 이상을 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반면, 다른 교회들은 제도화된 어떤 단일한 직제를 하나님의 뜻에 돌릴 수 없다고 믿는다. 어떤 교회들은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제도적인 연속성과의 단절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교회들은 복음에 대한 충실성이란 분열로 이어지는 단절을 야기하지 않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 WCC의 선언, "Called to Be the One Church," §3-7은 교회가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임"을 고백하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조항에 대한 유사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Growth in Agreement III*, 607 참조.

교회의 연속성과 변화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관련되는가

많은 교회들은 상호 존중과 상호 관심의 기초 위에서, 인내심을 갖고 서로 접촉하는 가운데, 교회의 연속성과 변화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감도와 주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동일한 의도—교회의 직제를 세우는 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경우에는 연속성에 대한 헌신을, 또 어떤 경우에는 변화에 대한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이 분명해진다. 우리는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의 직제를 세움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각자가 매진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연속성과 변화와 같은 이슈들을 고려함에 있어 상이한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성찰해볼 것을 촉구한다. 화해를 촉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시급한 부르심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기준이 새로운 발전에 대해 어디까지 개방적일 수 있는가? 지금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때인가?

C.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상의 표징이자 청지기인 교회

25. 하나님의 구상(De-Sign)은 인간과 모든 창조세계를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있는 친교 속으로 불러모으는 것이다(엡 1:10 참조).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신 친교의 반영으로서 이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의도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인간에게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인간이 자신의 창조된 목적이자 자신의 기쁨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그 목적—모든 천군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교회의 선교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한 증거와,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 교회의 선교는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므로(딤후 2:4 참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교회의 명시적인 신앙인들이 아닌 이들에게 다가가심을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한다. 교회의 선교는 타종교들과 비종교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진리와 선의 요소를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남성과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함에 이르도록 전도와 간증을 통하여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다.

26. 신약성서의 어떤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엡 1:9, 3:4-6 참조)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친밀한 관계(엡 5:32, 골 1:24-28

참조)를 지칭하는 데 신비(myster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사실은 교회가 단지 눈에 보이는 겉모양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영적 초월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회의 현세적 차원과 영적 차원은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조직적 구조는 호불호를 막론하고, 예전을 통해 경축되는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사들에 비추어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교회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와 인간성의 변모를 구현하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또 서로 간에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한다(고후 5:18-21, 롬 8:18-25 참조).

27.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을 이루는 특별한 방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이 있는 한편, 어떤 공동체는 “성례전(성사)으로서의 교회”(Church as sacrament)를 말함으로써 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는다. 반면에 다른 공동체는 보통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공공연히 거부한다. “성례전(성사)으로서의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은 교회를 인간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친교를 통하여 서로 간에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친교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표징이자 방편—때로는 도구(instrument)라는 말을 통해 설명되기도 한다—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다.¹²⁾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를 삼가는 이들은 이와 같은 용법이 전체로서의 교회와 개별 성례전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여러 공동체 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악성을 간과하도록 오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모든 이들이 동의한다. 다만 다양한 공동체 간에 교회의 본질과

12) 예를 들어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모인 로마가톨릭 주교들은 “성교회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사적 본질 안에 있다—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상통이자 모든 사람과의 일치를 나타내는 표징이자 도구”라고 진술하였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Lumen Gentium* [민족들의 빛], n. 1 참조). 여기서 도구(instrument)란 교회가 “효과적 도구임(effectiveness)”을 적극적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에서 사용된 것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성사적 본질을 긍정하면서도 기독교 공동체와 관련하여 “도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교회란 하나의 표징으로 보는 생각이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수용되는데, 이는 1968년에 웁살라에서 열린 WCC 제4차 총회 보고서에서 입증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교회는 스스로를 가리켜 장차 도래하게 될 인류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담대하게 말한다.” N. Goodall, ed., *The Uppsala Report*(Geneva: WCC, 1968), 17 참조. *Lumen Gentium*을 보려면, 다음의 주소로 접속할 것: <http://www.vatican.va>.

역할 및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교회의 예전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한 차이점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성례전(성사)로서의 교회”라는 표현

“성례전(성사)로서의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이 성례전(성사)들이 가진 독특한 “성사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 사역자들이 지닌 연약함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이러한 표현을 거부하는 이들 역시 교회가 하나님의 현존과 행동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표징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표현상의 차이가 호환되고 상호 용인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가?

D. 일치와 다양성 안에서의 공동체

28. 공동체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바람직한 다양성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께서는 공동의 선을 위하여 상호 보완하는 다채로운 은사들을 신자들에게 내려주신다(고전 12:4-7 참조). 제자들은 서로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또 그 덕분에 부요케 되는 한편(고전 12:14-26),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다(행 2:44-47, 4:32-37 참조). 문화적·역사적 요인들이 교회 내의 풍부한 다양성에 이바지한다. 복음은 특정 시대와 상황에 알맞은 언어와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선포되므로 각 시대와 장소에서 진정성 있는 삶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통해 복음을 표현하는 것만이 진정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을 다른 문화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면 바람직한 다양성은 어김없이 훼손되어 버린다.

29. 그러므로 일치성이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말씀의 선포와 성만찬의 집례 및 섬김과 증거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서, 이 공동의 신앙을 통해 각 지역 교회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 속한 지역 교회들과 공동체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치를 위해 이바지하며 다양성을 배양하는 목회사역이야말로 교회에 주신 중요한 방편들 중 하나로서, 이를 통해 교회는 상이한 은사들과 관점을 지닌 이들이 서로에 대해 상호 책임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30. 이방인들도 공동체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할 당위성을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분별케 된 때부터 일치와 다양성에 관한 쟁점은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항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행 15:1-29, 10:1-11:18 참조). 예루살렘의 사도회의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일치와 다양성을 좌우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할 만한 것을 담고 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행 15:28). 후에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모일 때마다 그 “요긴한 것들”의 실례를 덧붙여 나갔으니, 예를 들어 감동들은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325년, 니케아)에서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명시하였다. 근래에 들어서도 위와 같은 기본 교리에 함축된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확실한 교도적 견해를 공표했는데,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인종분리 정책에 대해 규탄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¹³⁾ 바람직한 다양성이라 해도 거기에는 제약이 있다. 특히나 다양성이 용인되는 한계선을 넘어설 경우, 그것은 일치의 은사를 파괴할 수도 있다. 교회 내적으로, 각종 이단과 분파들이 정치적 갈등 및 증오의 분출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물인 친교를 위태롭게 하곤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열과 이단을 극복하도록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지닌 예전과 관습과 교회법 상의 바람직한 차이점을 보존하고 존중하며, 영성 및 신학방법과 표현에 있어서 바람직한 다양성을 배양하는 일에도 부름을 받았기에, 이 사명을 교회 전체의 일치성과 보편성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¹⁴⁾

13) “World Council of Churches’ Consultation with Member-Churches in South Africa—Cottesole, Johannesburg, 7-14 December, 1960.” in *The Ecumenical Review*, XIII(2), January 1961, 244-250; “Statement on Confessional Integrity,” in *In Christ a New Community: The Proceedings of the Sixth Assembly of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Dar-es-Salaam, Tanzania, June 13-25, 1977*(Geneva: Lutheran World Federation, 1977), 179-180, 210-212; “Resolution on Racism and South Africa,” in *Ottawa 82: Proceedings of the 21st General Council of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Presbyterian and Congregational) Held at Ottawa, Canada, August 17-27, 1982*(Geneva, Offices of the Alliance, 1983), 176-180; The Belhar Confession, <http://www.urcsa.org.za/documents/The%20Belhar%20Confession.pdf>.

14) WCC의 선언문, “The Unity of the Church as Koinonia: Gift and Calling”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학적 전통과 다양한 문화적·민족적·역사적 접촉에 뿌리내린 다양성들은 친교의 본질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다양성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예컨대, 다양성으로 인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히 13:8)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구세주로 믿는 공동의 신앙고백이 불가능해진다면, 그러한 다양성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친교 안에서 다양성은 성령의 은사들과 조화를 이루게 되

바람직한 다양성과 분열을 야기하는 다양성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셨던 일치를 이루기 위한 에큐메니칼 대화는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기독교 교회들에서 파견한 대표들이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과연 바람직한 다양성인지 분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모든 교회가 자기 나름의 절차를 통해 바람직한 다양성을 그렇지 않은 것과 구분하고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결여되어 있음은 명백하다. (a) 공동의 판단 기준 내지 분별의 수단이 없다. (b) 이러한 기준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호 간에 인정할 만한 구조가 없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만, 신앙과 직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지속될 뿐 아니라 심지어 그와 같은 불일치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인지 아니면 바람직한 다양성의 일부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교회들로 하여금 공동의 분별이 가능하기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숙고해볼 것을 요청한다.

E. 지역 교회들의 공동체

31. 공동체적 교회론은 지역의 개 교회와 보편 교회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 유용한 틀거리를 제공해준다. 지역 교회가 “세례 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사도적 신앙이 고백되며, 성례전이 거행되고,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증거되며, 감독(episkopé)의 사역이 공동체를 섬기는 감독(주교들)들이나 여타 교역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그리

며, 이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지닌 풍성함과 온전함에 공헌한다.” In M. Kinnamon, ed., *Signs of the Spirit: Official Report Seventh Assembly*(Geneva-Grand Rapids: WCC-Eerdmans, 1991), 173. “바람직한 다양성(legitimate diversity)”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인 양자간 대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성공회-정교회 간 대화에서는 지역 교회들의 삶에서 엿보이는 광범위한 다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목한다. “하나의 믿음에 대한 그것들의 증언이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그러한 다양성은 어떤 결핍 내지 분열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사람을 배정하시는 한 분이신 성령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표지로 간주된다.” *The Church of the Triune God: The Cyprus Statement Agreed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Anglican-Orthodox Dialogue 2006*(London: Anglican Communion Office, 2006), 91. 또한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Facing Unity*, 1984, §§5-7, 27-30, 그리고 특별히 31-34, in *Growth in Agreement II*, 445-446, 449-450; 성공회-로마가톨릭 간 국제위원회, *The Gift of Authority*, §§26-31, in *Growth in Agreement III*, 68-69; 감리교-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Speaking the Truth in Love*, §50, in *Growth in Agreement III*, 154를 참조.

스도인들이 동의할 것이다.”¹⁵⁾ 문화와 언어와 공통의 역사가 모두 지역 교회의 구성 자체 내에 개입된다. 동시에 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공동체적 친교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 전부를 여타의 지역 공동체 모두와 더불어 공유한다. 각각의 지역 교회는 그 자체 안에 교회의 본질을 충만하게 보유하고 있다. 하나의 지역 교회는 온전한 교회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곧 전체 교회는 아니다. 따라서 지역 교회를 바라볼 때 여타의 지역 교회들로부터 고립된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맺고 있는 역동적인 관련성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 시초부터 지역 교회들 간의 공동체적 친교가 모금활동, 서신 교환, 방문, 성만찬에의 환대 및 구체적인 연대의 표현을 통해 유지되었다(고전 16장, 고후 8:1-9, 갈 2:1-10 참조). 처음 몇 세기 동안에도 지역 교회들이 이따금씩 함께 회집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곤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공동체적 친교를 유지하는 방편이었다. 지역 교회들의 이러한 공동체적 친교는 따라서 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보편 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신앙과 예배를 통하여 연합한 모든 지역 교회의 공동체적 친교인 것이다.¹⁶⁾ 그것은 단지 지역 교회들의 총합이거나 연맹체이거나 병존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 모두가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현존하며 활동하는 동일한 교회인 것이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가 기초한 세례 예비 학습서에서 서술하는 대로, 보편성(catholicity)이란 단지 지역 교회들의 지리적 확대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다채로운 다양성 및 그들을 하나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연합시키는 신앙과 삶의 충만성 안에 지역 교회들이 참여하는 것도 일컫는다.¹⁷⁾

32. 보편 교회 안에서 지역 교회들이 이루는 공동체적 친교에 대해 이러한 이해

15) 신구교공동사업기구(Joint Working Group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보고서, “The Church: Local and Universal,” §15, in *Growth in Agreement II*, 866 참조. 여기서 “지역 교회(local)”라는 말을 “교파(denominational)”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16) WCC 뉴델리, 읍살라, 나이로비 총회의 일차 선언문. W. A. Vissert Hooft, ed., *The New Delhi Report: The Third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61* (London: SCM, 1962), 116-134; N. Goodall, ed., *The Uppsala Report 1968: Official Report of the Four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Geneva: WCC, 1968), 11-19; M. Paton, ed., *Breaking Barriers Nairobi 1975: The Official Report of the Fif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London-Grand Rapids: SPCK-Eerdmans, 1976), 59-69 참조.

17) Cyril of Jerusalem, *Catechesis* 18, in J. P. Migne, *Patrologia Graeca* 33, 1044.

를 공유하면서도, 견해차이가 부상하는데, 그것은 “지역 교회”라는 표현이 뜻하는 공동체의 지역적 범위에 관해서만 아니라 감독들의 역할에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어떤 교회들은 감독(주교: bishop)이란 사도들의 계승자로서 지역 교회의 구조와 실체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 교회란 여러 교구(본당: parish)로 이루어진 감독관구(교구: diocese)인 것이다. 다른 교회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기 이해를 발전시켜 왔으므로, 이들에게 “지역 교회”라는 표현은 훨씬 낯설게 다가오며 감독의 사역과 관련하여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 몇몇 교회들이 보기에, 지역 교회란 일정 장소에 회집하여 말씀을 듣고 성례전을 거행하는 신자들의 회중일 따름이다. 감독직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교회들이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나 모두 “지역 교회”라는 표현을 교회들이 의장단의 지도 하에 시노드적 편제(synodal structure)로 회집하는 지역 연합체를 언급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끝으로 교회 직분 상의 체계(ecclesial order)가 지역별, 대륙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다자간 및 양자간의 대화들을 통해 의견수렴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진전이 목도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¹⁸⁾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의 관계

지역 교회가 보편 교회 내에서 가지는 기본적인 관계성 및 친교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공동의 인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의 인식이란 그리스도의 현존이 성부의 뜻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지역 교회 안에서 참으로 드러나며(지역 교회는 “온전한 교회”이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현존이 지역 교회로 하여금 보편

18) 다자간 대화의 좋은 예는 신구공동사업기구의 보고서, “The Church: Local and Universal,” in www.oikoumene.org/en/%20resources/documents/wcc-commissions이다. 또한 *Growth in Agreement II*, 862-875 참조. 양자간의 대화로는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Church and Justification”에 관한 대화에 들어 있는 “Ecclesial Communion—Communion of Churches,” in *Growth in Agreement II*, 505-512를 참조. 아울러 특별히 정교회-로마가톨릭 간의 성명서 “Ecclesiological and Canonical Consequences of the Sacramental Nature of the Church: Ecclesial Communion, Conciliarity and Authority”(2007) at: 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chrstuni/ch_orthodox_docs/rc_pc_chrstuni_doc_20071013_documento-ravenna_en.html 참조.

교회와의 친교에 이르게 한다(지역 교회 자체가 “전체 교회”는 아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지역 교회”라는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다 진전된 일치를 위해 함께 탐색하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더 밀도 있는 상호 이해와 의견일치를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한 교회가 완전히 연합한 경우 그 안에서 진행되는 교회생활의 다양한 차원을 조정하는 적절한 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관계들을 섬기며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목회 지도력의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인가?

III. 공동체적 친교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A. 이미 그러나 아직

33. 교회는 종말론적 실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겨 살고 있으나, 그 완전한 실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된 활동자로서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봉사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회복에 이르기까지 구원사의 전 과정을 인도하시어 성부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 이러한 성령의 활동에 비추어 현재를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신비에 속한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34.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신자들 간의 공동체적 친교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미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친교의 삶이 유효하게 실현되어 있음을 드러내주는 가시적이고도 유형적인 표지들은 다음과 같다. 사도들의 신앙을 받아서 공유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성만찬의 빵을 떼어서 나누는 것,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또한 세상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 다른 이들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와 협력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반면에 교회는 역사적인 실체로서 세상의 조건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조건 중 하나는 변화인데,¹⁾

1) 이러한 변화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지나는 항구적인 의미—“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이는 성장과 발전이란 의미에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쇠퇴와 왜곡이란 뜻에서 부정적 의미를 띠기도 한다. 다른 조건들로는 교회의 믿음과 생활과 증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적·역사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35. 교회는 순례자의 공동체로서 죄악의 현실과 싸우고 있다. 에큐메니칼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 간의 관계를 바라봄에 있어 간혹 시각 차이 정도로 치부되어 온 것들의 배후에 뿌리 깊은 집단적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집단적 확신을 표명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어떤 교회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교회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한 존재라고 확신한다. 다른 교회들은 죄란 조직적인 것이므로 교회의 제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죄가 교회의 참된 신원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실재하는 까닭에, 교회를 일컬어 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양한 공동체가 죄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상의 차이점들도—죄가 일차적으로 도덕적 불완전인지 관계성의 파괴인지, 아울러 죄가 과연 또 얼마나 조직적인 것인지—이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36.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마 16:18 참조).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신 승리는 완벽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과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늘 그 승리의 열매에 동참할 것을 확신한다. 동시에 현세에서는 믿는 자들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여전히 죄의 권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모든 교회는 믿는 자들 중에 죄가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종종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두는 기독교적인 자기성찰과 참회와 회심(메타노이아) 및 화해와 갱신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한다. 거룩함과 죄악은 결코 일률적이지 않은 상이한 방식으로 교회의 생활에 관계되어 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신원을 나타내는 반면, 죄악은 이러한 신원과 상충된 채로 존재한다(롬 6:1-11 참조).

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를 퇴색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B.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인 신앙, 성례전, 직제 안에서의 성장

37.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공동체의 완전한 실현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의 생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면모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다. “가시적으로 연합된 한 교회 내에서 온전한 공동체—에큐메니칼 운동의 목표—를 위해 요구되는 교회적 요소로는 사도적 신앙의 온전함, 성례전적 삶, 진정으로 단일하고도 상호 인정되는 사역, 공의회적 관계망과 의사결정을 이루는 구조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의 공동 증언과 섬김 등을 통한 공동체적 친교를 꼽을 수 있다.”²⁾ 이러한 특성이야말로 바람직한 다양성 안에서 일치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틀거리이다. 더 나아가,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로의 일치를 지향하는 성장의 과정은 인류 및 창조세계 전체와의 일치를 촉진해야 하는 그들의 소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화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례, 성만찬, 직제>의 작성과 수용의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친교를 이루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앞의 두

2) “The Church: Local and Universal”(1990), §25, in *Growth in Agreement II*, 868로부터 인용함. 이 문서의 단락 10-11과 28-32는 인용문과 각주를 통해 친교의 주제를 다룬 발표문이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개혁교회 및 로마가톨릭을 망라한 다방면에 걸친 에큐메니칼 대화들과 아울러 WCC의 여러 총회에서 채택된 일치에 관한 선언문들로부터 도출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이 문서 제2장 각주 16번 참조). WCC 선언문, “The Unity of the Church as Koinonia: Gift and Calling”은 [상호 인정된(recognized)이라는 말에 화해된(reconciled)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직제의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다.(M. Kinnamon, ed., *Signs of the Spirit: Official Report Seventh Assembly* [Geneva: WCC, 1991], 173.)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인 “Facing Unity,” in *Growth in Agreement II*, 456-477에서도 친교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유사한 접근이 엿보이는데, 여기서는 교회를 가리켜 신앙과 성례전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소개한다. 감리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인 “The Apostolic Tradition,” in *Growth in Agreement II*, 610-613에서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신앙과 예배와 직제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WCC의 뉴델리(1960), 나이로비(1975), 캔버라(1990) 및 포트 알레그레(2006) 총회에서 채택된 고전적인 일치 선언문도 일치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 포트 알레그레 총회의 선언문에서 묘사하듯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교회들이 확신하는 바, 우리가 기도하고 희망하고 노력하는 일치란 사도적 신앙에 대한 공동의 고백과 하나의 세례에 의해 들어가고 하나의 성만찬적 교제 안에서 함께 경축하는 공동의 성례전적 삶과 동일한 지체됨과 교역을 상호 인정하고 화해하는 공동의 삶과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창조계를 섬기는 공동의 사명 안에서 주어지고 드러나는 코이노니아이다. 이러한 코이노니아는 모든 장소에서, 상이한 장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간의 공의회적 관계성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Called to Be the One Church,” §2, *Growth in Agreement III*, 606-607.

요소[세례와 성만찬]에 비하여 사역의 분야에서는 더 진전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이미 상당한 대화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 문서의 의도는 그러한 과거의 성과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간략히 요약하는 가운데 그 이후로 근래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 더 진전된 분야들을 적시하려는 것이다.

신앙

38. 앞의 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인 신앙과 관련하여,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유 1:3) 신앙을 매 세대마다 선포하는 가운데 사도들로부터 처음 물려받은 교훈에 확고히 머물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일치기 존재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겨나서, 성령의 은총으로 활력을 얻으며, 성서 안에서 검증되어 교회의 살아 있는 전승을 통해 유전된다. 신앙은 예배와 생활과 봉사 와 선교를 통해 고백된다. 신앙은 변화하는 시간과 장소의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해석의 내용들은 원 증언 및 여러 시대 동안 이어져 온 이에 대한 충실한 해설과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신앙은 매 시대와 장소에 따른 여러 도전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신앙은 개인적인 정황과 아울러 부정의, 인간 존엄성의 침해 및 창조질서의 붕괴를 포함한 사회적 상황들에 대해 발언한다.

39. 에큐메니칼 대화를 통해 드러난 것은 믿는 자들 간에 기독교 교리 중 여러 핵심 사항들에 대해 이미 상당한 일치기 존재한다는 사실이다.³⁾ 1991년에 출간된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기>라는 연구 문서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채택한 예전(전례서)에서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의 의미에 대해 그리스도인들 간에 견실한 의견 일치기가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 문서는 또한 신조에 표현된 신앙이 어떻게 성서 안에 토대를 두고, 에큐메니칼 신조 안에서 고백되고 있는지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현대 세계로부터 비롯되는 도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새로이 고백되어야 하는지 설명

3) 예를 들어 Walter Kasper의 *Harvesting the Fruits: Basic Aspects of Christian Faith in Dialogue*(London–New York: Continuum, 2009), 10–47에 포함된 “Fundamentals of Our Common Faith: Jesus Christ and the Holy Trinity” 및 “Salvation, Justification, Sanctification”을 다루는 장들을 볼 것. 여기서는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개혁신교, 로마가톨릭 간에 진행되어 온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설하고 있다.

해주고 있다. 이 연구 문서는 교회들로 하여금 자신과 여타 교회들이 니케아 신조가 제시하는 신앙에 충실해왔음을 인정하도록 할 뿐 아니라 오늘날 그 신앙을 선포함에 있어 신뢰할 만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도구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1998년에 출간된 『질그릇에 담긴 보물』은 성서와 전통에 대한 지속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신앙이 전수되어 온 과정을 탐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서로 간의 대화 가운데 각자의 전통을 재고하고 재해석하도록 인도하시되, 교회의 일치성 안에서 단일한 전통을 구현할 것을 늘 지향하신다.”⁴⁾ 교회들은 성서의 형성과 이후의 해석에서 전통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최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한 해석의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해하고자 애쓰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교계의 해석에는 회중 전체의 신앙 경험, 신학자들의 통찰 및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분별이 개입된다는 것이 술한 양자간의 대화 가운데 인정되고 있다.⁵⁾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해서 함께 작용하는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도록 도전받고 있다.

4) *A Treasure in Earthen Vessels* (Geneva: WCC, 1998), §32. 일찍이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직제에 관한 단락 §3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도 전통이란 사도 교회의 영원한 특징들이 연속되는 것을 뜻한다. 그 특징이란 곧 사도적 신앙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일, 세례와 성만찬을 베푸는 일, 교역자의 책무를 전승시키는 일, 기도와 사랑과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일, 병든 이들이나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 지역 교회들 간에 하나 되는 일,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다.” 박근원 옮김, 『세례, 성만찬, 교역』, 114.

5) 예를 들어, 루터교-정교회 성명서, “Scripture and Tradition,” in *Growth in Agreement II*, 224-225; “Agents of Discernment”를 다루고 있는 감리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The Word of Life,” §§62-72, in *Growth in Agreement I*, 632-634; 성공회-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Gift of Authority,” in *Growth in Agreement III*, 60-81; 제자교회와 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Receiving and Handing on the Faith: The Miss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in *Growth in Agreement III*, 121-137; 감리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Speaking the Truth in Love: Teaching Authority among Catholics and Methodists,” in *Growth in Agreement III*, 138-176; 아울러 “전통과 성서(Tradition and Holy Scripture)”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신학자의 역할(The Role of the Theologian in the Christian Community)”을 다루고 있는 개혁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보고서”(2001), §§22-28, in *Growth in Agreement III*, 43-44 등을 볼 것.

성례전(성사)

40. 성례전과 관련하여, 교회들은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와 거행방식에 대하여 <세례, 성만찬, 직제>가 서술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동의를 나타냈다.⁶⁾ 이 문건은 또한 가장 주요한 미결 과제들에 대한 진전된 의견수렴을 모색하기 위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 미결 과제들이란 누가 세례 대상자인가 하는 문제,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현존)의 문제, 성만찬이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 등이다. 동시에 <세례, 성만찬, 직제>는 도유식 내지 견신례(견진성사)에 대하여 짙막하게 논평하면서도, 여러 공동체가 거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중 몇몇 공동체가 성례전으로 간주하기도 하는 다른 예식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문서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자기들의 소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기들도 교회의 성례전적 삶에 동참한다고 확신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견해를 고려하려는 의도가 담기지 않았다.

41. 세례에 대한 이해에서 교회들 간에 의견수렴이 점증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⁷⁾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행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한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을 경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삶과 죽음 및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마 3:13-17, 롬 6:3-5 참조). 그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딤후 3:5)이며,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케 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분깃과 장래 세상에서의 삶에 동참하도록 한다(엡 2:6 참조). 세례에는 죄의 고백, 마음의 회심, 사죄, 정결케 함과 거룩케 함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세례를 통하여 믿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벧전 2:9)의 일원으로 성별(축성)된다. 따라서 세례는 일치의 기

6)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1982-1990: Report on the Process and Responses*(Geneva: WCC, 1990), 39, 55-56 참조.

7) 이 단락은 “II. The Meaning of Baptism”라는 제목을 가진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에 세례를 다루는 단락, §§2-7에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4개의 국제적인 양자간 대화에서 오고간 매우 유사한 진술들은 W. Kasper, *Harvesting the Fruits*, 164-168의 “Common Understanding of Baptism”과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연구 문서, *One Baptism: Towards Mutual Recognition*(Geneva: WCC, 2011)에서 발견된다.

본적인 결속인 것이다. 어떤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가 도유식 내지 견신례—이것은 그들이 보기에 입교의 성례전(성사) 중 하나이다—를 통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본다. 세례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합의에 따라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담한 몇몇 교회로 하여금 세례에 대한 상호 인정을 촉구하도록 하였다.⁸⁾

42. 세례와 성만찬 간에는 역동적이며 심오한 관계가 있다. 새로이 입교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게 되는 그 친교의 관계는 성만찬 안에서 더 온전히 표현되며 거기서 영적 자양을 얻는 성만찬은 세례 때의 신앙을 재확증하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은총을 수여한다. 에큐메니칼 대화를 통해 나타난 성만찬에 대한 진전된 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⁹⁾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식탁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는 잔치(celebration)이다. 성만찬은 복음의 선포이고,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 성부께 영광 돌리는 것(doxologia, 귀영)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및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것(anamnesis, 기념)이고, 성령을 불러서 빵과 포도주의 요소를 성별하고 성만찬의 참가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것(epiclesis, 성령 초대)이다.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중보기도가 드려지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예견하고 미리 맛보는 가운데 성도들 간의 교제가 깊어지므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만찬과 교회가 누리는 생명과의 연관성을 밝히 보여준다(고전 10:16-17, 11:17-33 참조).

43. 신앙의 고백과 세례가 섬김과 증거의 삶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듯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한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이들 간의 화해와 나눔을 요청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 안에서 버림받은 이들과 연대하도록 부름받는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셨고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셨으며 이

8) 세례에 대한 상호 인정의 실례는 2007년 4월 29일 독일기독교교회협의회(Christian Council of Churches in Germany)에 속한 16개 교회 중 11개 회원 교단들 간에 맺어진 협약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www.ekd.de/english/mutual_recognition_of_baptism.html에 기술되어 있다.

9) 여기에 나오는 내용 요약은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성만찬에 관한 단락, §§2-26에 실린 “II, The Meaning of the Eucharist”에 근거한 것이다.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개혁신교 및 로마 가톨릭 간의 진행되는 다양한 수준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Kasper, *Harvesting the Fruits*, 168-90에 실린 “The Eucharist”를 볼 것.

제는 성만찬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표징이 되도록 부름받는다. … 성만찬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는 새로운 현실을 초래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언자들이 되게 한다”(박근원 옮김, 68 참조).¹⁰⁾ 몇몇 교회들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갱신(전례개혁) 운동은 성례전에 관한 에큐메니칼 대화에서 나타난 의견수렴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44. 기독교 전통들 간에는 세례와 성만찬 및 기타 예식들을 가리켜 “성례전”(성사: sacraments)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례”(ordinances)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 “성례전”이라는 말(그리스어 미스터리온/신비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예식의 행동을 통해 전달됨을 가리킨다. 반면에 “규례”라는 용어는 예식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따라 행하여지는 것을 강조한다.¹¹⁾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종종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연구 문서인 <하나의 세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대부분의 전통에서는 ‘성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규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실재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방편적이며 동시에 (이미 존재하는 실재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몇몇 전통들에서는 방편적 차원을 강조하고 … 다른 전통들에서는 표상적 측면을 강조한다.”¹²⁾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교리적 불일치라기보다는 강조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예식들은 교회가 지닌 “제정적”(institutional)임과 동시에 “은사적”(charismatic)인 측면을 드러낸다. 이 예식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가시적이며 효력 있는 행동이며, 동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유효하게 된다. 성령은 이 예식들을 방편으로 삼아서 그 성례전을 받는 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건덕 및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교회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신다.

10)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성만찬에 관한 단락, §§24 and 26.

11) 라틴어 용어 “sacramentum”은 신입 병사가 군복무를 시작할 때 서약하던 맹세를 가리켰으며, 라틴어로 신학 작업을 한 최초의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160-220)는 세례를 언급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12) *One Baptism: Towards Mutual Recognition*, 30.

성례전과 규례

세례와 성만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과, “성례전” 내지 “규례”와 같은 표현의 역사적 기원 및 그것들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성찰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교회들에게 제기되는 도전은 이러한 예식들을 포함하여 교회생활이 지닌 그러한 [성례전적] 차원에 대하여 교회들 간에 보다 깊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수렴에 따라 교회들은 몇가지 질문에 대해 더 숙고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세례와 성만찬 및 기타 예식들을 “성례전”이라고 부르든 “규례”라고 부르든 간에—예전(전례)을 거행하는 중에 도유식/견신례라든가, 혼인예식이라든가, 성직수임식(안수식) 등의 기타 예식 내지 성례전들을 집례하고 있으며, 아울러 죄의 용서와 병자들의 축복을 위한 예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성례전 내지 규례들의 수효와 교회법적 지위가 에큐메니칼 대화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가? *아울러 우리는 교회들로 하여금 누가 세례 대상자가 될 것이며, 교회의 예전(전례)을 거행함에 있어 누가 집례자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진전된 의견수렴을 이룩할 수 있는지 숙고해볼 것을 요청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식들을 거행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이 성례전이나 기타 예식들의 거행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기독교 공동체 간에 보다 온전한 상호 이해를 이룩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가?

교회의 대내적 사역

안수받은 목회자

45. 모든 교회는 옛 계약에 속한 제사장(사제)들과 달리(히 7:23 참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히 8:10 참조)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구속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성서의 가르침(히 7:27, 9:12, 9:26, 10:10, 12-14 참조)에 대해 확신한다. 이 본문들이 함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회들 간에 서로 다른 해석을 도출해낸다. <세례, 성만찬, 직제>에서는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중

* 옮긴이 주: “The word sacrament may not the number and ecclesial status of these sacraments or ordinances be addressed in ecumenical dialogues.” 영어 원문이 잘못된 것으로 보임. 프랑스어 번역 참조.

보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목회 속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일을 통하여 성도들이 맡아야 할 왕적이고 예언자적인 사제직을 견고케 하고 또 새롭게 세워나감으로써 특수한 사제적 섬김을 완수하기에, 그들을 가리켜서 사제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¹³⁾ 그러한 견해에 발맞추어, 어떤 교회들은 안수받은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9에서 말하는 모든 신자의 왕적 사제직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특정인들이 신품 성사(the sacrament of ordination)를 통하여 특수한 사제적 역할을 맡도록 안수를 받는다(ordained)고 믿는다.¹⁴⁾ 다른 교회들은 안수받은 목회자들을 두고 “사제들”이라고 보지 않으며, 어떤 교회들은 성직수입(ordination)을 성례전적 용어로 이해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을 남성들에게만 인정하는 성직수입에 관한 전통적인 제한 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안수받은 목회자

에큐메니칼 대화는 안수받은 목회자와 관련한 쟁점이 일치를 향한 여정에서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안수받은 성직자들의 사제적 등에 관련된 차이점들이 온전한 일치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46. 모든 교회가 안수받은 목회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제정하고, 행사할 것인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성서에 의거하곤 하지만, 신약성서 안에는 목회자에 관한 어떤 단일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성령께서는 교회들을 인도하시어 그 직제를 상황의 필요에 따라 변용하도록 하셨다(행 6:1-6 참조). 다양한 형태의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축복을 받았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와 같은 초기 저술가들은 감독(주교), 장로(사제), 집사(부제)로 이루어

13)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직제에 대한 단락, §17.

14) 성공회-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Ministry and Ordination” 및 “Elucidation,” in *Growth in Agreement I*, 78-87; 정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The Sacrament of Order in the Sacramental Structure of the Church,” in *Growth in Agreement II*, 671-679를 볼 것.

진 삼중적 사역을 내세웠다.¹⁵⁾ 이러한 삼중적으로 연관된 목회자들은 신약성서 안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형태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들에서 규범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떤 교회들은 종교개혁기 이래로 상이한 직제의 형태를 채택하였다.¹⁶⁾ 성서의 정경, 교의, 예전적 질서 등, 교회의 사도성을 유지하는 여러 수단 중에 안수받은 직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직제에서 계승은 교회의 사도적 연속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47.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는 공식적인 사역의 구조가 있다. 이 구조는 흔히 다각화되어 감독(episkopos)-장로(presbyteros)-집사(diakonos)라는 삼중적 형태를 다소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들 간에 “역사적 감독직”(교회의 최초 세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도적 계승 안에서 안수받은 감독들을 의미함) 내지는 보다 광범위하게 말해서 안수받은 직제의 사도적 계승이란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의도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있다. 어떤 교회들은 감독, 장로, 집사로 이루어진 삼중적 직제가 복음에 대해 충실성을 지켜온 표지이자 교회가 전체로서 지켜온 사도적 연속성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믿고 있다.¹⁷⁾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교회들은 복음에 대한 충실성이 사역에서 계승과 그리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 어떤 교회들은 역사적 감독

15)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Letter to the Magnesians* 6 and 13; *Letter to the Trallians* 7; *Letter to the Philadelphians* 4; *Letter to the Smyrnaeans* 8 등을 참조.

16) 종교개혁 이후 나타난 발전과정에 대한 통찰력 깊은 해설로는, 개혁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Church” 중의 단락 §§12-63에 실린 “Toward a Reconciliation of Memories,” in *Growth in Agreement II*, 781-795;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The Apostolicity of the Church*, Minneapolis 2006, §§65-164, 40-71를 들 수 있다.

17) 이 점에 대해서,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Church and Justification”(1993), §185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칭의/의화의 교리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수받은 직제가 교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Growth in Agreement II, 5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단락 후에, 동일한 문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감독직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회론적 평가에 대해 가톨릭과 루터란이 보여주는 견해차는 이 직제에 대한 루터란의 반대 내지는 무관심이 이 직제가 교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는 가톨릭의 주장과 날카롭게 대립될 정도로 그렇게 격심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라리 이 직제에 대한 평가에서 엿보이는 미묘한 편차라고 하겠다. 가톨릭 측에서는 이 직제를 두고 ‘필수적(necessary) 내지는 ‘불가결(indispensable)과 같은 서술어를 사용하는 반면, 루터란 측에서는 ‘중요한(important), ‘의미 있는(meaningful) 따라서 ‘바람직한(desirable)과 같은 서술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197; Growth in Agreement II, 532).

직이란 것이 쉽사리 남용되어 왔으므로 공동체의 안녕에 잠재적으로 해를 줄 수 있다고 보기에 그것에 대해 경계한다. <세례, 성만찬, 직제>가 자기 몫으로 단지 확 인하고 있는 것은 삼중적 사역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¹⁸⁾

삼중적 사역

교회 내에서 안수받은 목회자가 갖는 위치에 대해 점차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삼중적 직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실현하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관하여 교회들 간에 합의를 이룰수 있는지 묻게 된다.

교회의 목회자가 가지는 권위의 은사

48. 교회 내의 모든 권위는 교회의 주님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 그리스도는 신약성서에서 ‘엑수시아’(권력, 대리권, 도덕적 권위, 영향력 등을 의미한다. 문자적으로는 ‘자신의 존재로부터 말미암음’을 뜻한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자신의 권위를 그의 가르치심(마 5:2, 눅 5:3 참조)과 기적을 행하심(막 1:30-34, 마 14:35-36 참조)과 악령을 쫓아내심(막 1:27, 눅 4:35-36 참조)과 죄를 용서하심(막 2:10, 눅 5:4 참조) 및 제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마 16:24 참조) 가운데 행사하셨다. 예수의 사역 전체를 특징 짓는 것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 동원된 권위였다(막 1:27, 눅 4:36).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그것을 사도들과 함께 나누셨다(요 20:22 참조). 감독직(episkopé)의 사역을 이어간 사도들의 계승자들은 복음의 선포와 성례전, 특히 성만찬의 집례와 신자들을 목회적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권위를 행사하였다.¹⁹⁾

49. 교회 내의 권위가 지니는 독특한 본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십자가

18)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직제에 관한 단락, §22.

19) 예수께서 권세를 지니고 계시며 그것을 교회와 더불어 나누어 가지신다고 기술하는 이 단락의 기본적인 내용은 2007년에 나온 정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라벤나 성명서("Ecclesiological and Canonical Consequences of the Sacramental Nature of the Church: Ecclesial Communion, Conciliarity and Authority," §12)에서 진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문서의 제2장 각주 18번을 볼 것.

에 달리시되,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빌 2:7-8)을 당한 분이 지니신 권위에 비추어볼 때 바르게 이해되고 또 행사될 수 있다. 이러한 권위는 예수께서 교회를 천국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의 종말론적 약속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권세와 다르다. 제자들이 서로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주시며, 자기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막 10:41-45, 눅 22:25 참조). 교회 내의 권위는 겸비한 섬김으로써, 믿음과 삶과 증거를 통해 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세워나가고 거기에 자양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섬김으로서의 권위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의 본을 통해 잘 드러난다(요 13:1-17 참조). 그것은 어떠한 지배도 강압도 행사하지 않는 사랑의 섬김(diakonia)이다.

50.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차원을 지닌 교회 내의 권위는 따라서 단순한 권력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다. 교회가 다양한 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권위의 원천, 즉 성서, 전통, 예배, 공의회 및 교회회의들도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다.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부터”(시 8:2, 마 21:16 참조) 들려오는 곳마다 이러한 권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다른 이들 및 모든 피조계와의 관계에서 더 위대한 진정성을 의미한다. 역사상 교회는 성인들의 생애 속에, 수도생활의 증거 속에, 일단의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진리를 드러낸 다양한 형태 속에 일정한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여 왔다. 이에 따라 에큐메니칼 대화들과 거기서 나온 합의문들 안에도, 특히나 그것들이 “사랑 안에서 참됨”(엡 4:15 참조)을 함께 찾아가며 발견한 것을 반영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들 간의 친교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촉구하며 지속적인 회개와 생활의 거룩함으로 초대할 경우에, 특정한 종류의 권위가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

51.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도적 목회에 종사하는 이들과 공유하고 계시는 권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위임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교회의 섬김을 위해 예정된 성령의 은사이

다. 그러한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바, 공동체는 신앙의 감각(sensus fidei)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지도력이 진정성 있는 것임을 입증한다. 상호 간의 사랑과 대화를 통해,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과 권위에 복종하는 이들이 서로 연합한다.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예배와 섬김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요청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엡 4:11-16 참조)²⁰⁾ 돕는 것을 지향함으로 자발적인 협조와 동의를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감각”과, 성서 및 신학 연구에 특별한 방식으로 헌신된 이들이 발견한 통찰과, 감독의 목회를 위해 특수하게 성별된 이들이 행하는 지도력 등이 모든 것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협력한다. 교회 내의 의사결정은 모든 이들의 합의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분별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성령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명료했던 것들을 해소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현재 우리가 처한 분열의 와중에도,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 효력을 미치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의 지도력은 그로 하여금 “흑백분리 정책은 너무나 강력하므로 갈라진 교회가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도록 하였고,²¹⁾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의 선도에 힘입어 기독교 지도자들은 생태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투스 16세는 그리스도인들과 타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초청하였다. 폐제 공동체를 설립한 로제 슈츠 수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수

20) “Ecclesiological and Canonical Consequences of the Sacramental Nature of the Church: Ecclesial Communion, Conciliarity and Authority,” §§13-14 참조. 이 문서의 제2장 각주 18번을 볼 것.

21) Desmond Tutu, “Towards Koinonia in Faith, Life and Witness,” in T. Best and G. Gassmann, eds., *On the Way to Fuller Koinonia*(Geneva: WCC, 1994), 96-97.

많은 기독교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 예배에 함께 모이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교회 내에서의 권위와 권위의 행사

다양한 양자간의 대화를 통해 권위와 그 행사에 대한 의견수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목도되었다.²²⁾ 그러나 다양한 권위의 원천들에 얼마만큼의 가중치가 배정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규준이 되는 신앙의 표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을 통해 확보하는지, 계시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제공함에 있어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교회들 간에 여전히 불일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교회들 간에는 복음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살아내며, 세상 속에서 겸비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행하여야 한다는 긴급한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권위를 인정하고 행사하는 방식에 관한 에큐메니칼적인 의견수렴을 모색하다 보면 교회들이 가진 이러한 선교적 열정을 촉진시키는 창조적인 역할이 기대되지는 않겠는가?

감독직의 목회자

5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에 의해, 다양한 은사 내지 목회자를 통해 세워진다. 이러한 은사들은 전체 교회 및 교회의 일치와 선교를 풍성하게 한다.²³⁾ 복음에 따라 세워진 감독직의 목회자가 이 사역을 위해 선택되고 따로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 충실하게 수행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생활과 사명을 위해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 필요조건이다. 감독직의 구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이를 겪으며 고유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는 감독제의 구조를 따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감독직의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늘 인식하여 왔다. 여하한 경우에도 감독직은 사도적 신앙의 연속성과 삶의 일치를 유지하

22) 예를 들어, 성공회-로마가톨릭 간의 보고서, "Authority in the Church," 1976, in *Growth in Agreement I*, 88-105; "Authority in the Church II," in *Growth in Agreement I*, 106-18; "The Gift of Authority," 1998, in *Growth in Agreement III*, 60-81을 볼 것. 이것은 또한 감리교-로마가톨릭 간의 문건, "Speaking the Truth in Love: Teaching Authority among Catholics and Methodists," §§83-84, in *Growth in Agreement III*, 163-164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23)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section on Ministry, §23 참조.

기 위하여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거행하는 것에 더하여, 목회자가 가진 주요 임무는 계시된 진리를 보존하여 전수하고, 지역 회중들을 친교 안에 머물게 하고, 복음의 증언을 위하여 상호 지원하며 지도하는 일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활동 안에는 인간 삶의 개선 및 재난의 구호 등에 종사하는 다양한 기독교 봉사 단체들—우리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봉사(diakonia)에 속한 여러 측면—을 감독하는 일이 포함된다. 에피스코페 즉 감독직이란 용어로 요약되는 이 모든 기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신자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동체에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과도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이다. 이 점은 바로 감독직의 목회자가 교회 내의 모든 사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집단 지도체적(collegial)·분권 공동체적(communal)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확인해준다.²⁴⁾ 이러한 감독직의 수행 방식들에 대해서 <세례, 성만찬, 직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안수받은 목회자는 개인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삶과 증언의 일치 속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기 위해 안수받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수받은 목회자는 또한 집단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공동의 과업을 함께 나누는 일단(一團)의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안수받은 목회자들과 공동체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차원 안에서 안수받은 목회자의 수행은 공동체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²⁵⁾

53. 이와 같은 감독직 수행의 한 측면이 반영해주는 교회의 특성을 두고 “시노드

24) 1927년 로잔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위원회 제1차 세계대회에서, 교회들을 “감독제”(episcopal), “장로제”(presbyteral) 및 “회중제”(congregational) 치리 형태로 분류하는 방식이 이미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세 가지 치리 형태를 받쳐주는 가치체계가 “교회의 직제에 있어 긴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믿었다.” H. N. Bate, ed., *Faith and Order Proceedings of the World Conference: Lausanne, August 3-21, 1927*(London: Student Christian Movement, 1927), 379. 55년이 경과한 후,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문서 중 직제에 대한 단락, 해설 §26은 이 로잔 문서를 인용하면서 안수받은 직제가 개인적·집단적 및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당화하고 있다.

25)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직제에 대한 단락, §26.

성” 내지 “공의회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시노드(synod)라는 말은 그리스어 syn(함께)과 odos(길)의 합성어로서 “함께 걷는다”는 뜻이다. 시노드성과 공의회성은 공히 교회의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는 세례에 의해 자신의 고유한 지위와 합당한 책임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준다.²⁶⁾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서, 전 교회는 지역 교회와 연합체와 보편 교회를 아우르는 교계적 삶의 모든 차원에서, 시노드성 내지 공의회성을 지니고 있다. 시노드성 내지 공의회성의 특성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이 지니신 신비를 반영해주며, 교회의 구조 역시 이러한 특성을 드러냄으로 하나의 친교로서 공동체의 삶을 실현하게 된다. 성만찬적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특성은 지체들과 그들의 담임 목회자 사이에 맺어진 사랑과 진리 안에서의 심오한 일치로 통해 경험된다.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노드가 모여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요 16:7, 12-14 참조), 교리적 내지 도덕적 위협성 또는 이단 교설들에 대응하여 사도적 신앙을 분별하였다. 보편 교회의 시노드에는 전체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교회 전체의 친교를 배양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감당한 중요한 직무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²⁷⁾ 현재 교회들 간에는 시노드에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것과 그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 상이한 견해와 관행이 있다.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권위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결정한 교리적 규정이 신약성서의 가르

-
- 26) 정교회-로마가톨릭 간의 국제대화, “Ecclesial Communion, Conciliarity and Authority,” §5를 볼 것. 여기서서는 시노드성이 공의회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 27) “에큐메니칼” 공의회 내지 시노드는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성자가 성부에 대해 지니는 동등성을 부정한, 아리우스의 새로운 교설에 대응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기 위해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회의가 보편적으로 첫번째 공의회로 인정된다. 그러한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 교회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에큐메니칼 공의회와 그 권위에 대해서는 루터교-정교회 간의 문서, “Authority in and of the Church: The Ecumenical Councils”(1993), in *Growth in Agreement III*, 12-14를 볼 것. 제자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Receiving and Handing on the Faith: The Miss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Church”의 단락, “Councils and the Declaration of the Faith,” in *Growth in Agreement II*, 125-127을 볼 것. 또한 *Councils and the Ecumenical Movement*(Geneva: WCC, 1968) 참조.

침을 표현하고 있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교회들은 신약시대 이후에 나온 모든 교리적 결정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다른 교회들은 몇가지 교리적 규정은 규범적이며 따라서 개정될 수 없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간주한다. 에큐메니칼 대화에서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들의 가르침과 결부된 규범성에 대해 공동의 검토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는가?

54. 교회가 함께 모여 협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누군가가 질서의 유지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모임을 주재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분별하며 도출해내는 과정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이들은 언제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건덕을 위해 자기가 주재하는 이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지역 교회들의 통전성을 존중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발언권을 보장하며, 다양성 속에서 일치성을 유지하는 것이 회의를 주재하는 이들의 책무이다.

55. 수위권(primacy)이라는 말은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이미 오래된 관행으로 인정한 특정 관습 및 관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와 안디옥의 감독(주교)들이, 그리고 후에는 예루살렘과 콘스탄티노플의 감독들이 자신들의 개별 관구에 속한 관할 영역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독자적인 처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한 수위권적 처리가 일치를 위한 집단적 사역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시노드성/공교회성과 대치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여러 형태의 수위권이 다양한 차원에서 공존하였다. 첫 수세기 동안 교회의 자기 이해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중을 받고 있는 『사도헌장』의 교령 제34항에 따르면, 일국 내의 감독들 중 제1인자인 감독은 다른 감독들과 합의하에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다른 감독들은 제1인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중요 결정도 할 수 없었다.²⁸⁾ 첫 수세기 동안에도, 수위권과 관련된 다양한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 간의 경쟁 때문에 이따금씩 오염되기도 하였다. 로마의 감독은 해당 지역 교회가 사도 베드로 및 사도 바울과 갖고 있는 관련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미치는, 의사결정(처리)권과 교도권에 해당되는 수위권을 점차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로마의 수위권은 첫 수세기 동안 많

28) 이 교령의 내용은 www.newadvent.org/fathers/3820.ht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 교회들의 인정을 받았으나, 그 기본적인 역할 및 행사의 방식은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 수년 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보다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덕분에 전 교회적 일치에 이바지하는 사역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56. 부분적으로는 다자간 및 양자간 대화를 통해 이미 나타난 진전 덕분에, 신앙과 직제에 대한 제5차 세계대회는 “기독교 일치를 위한 보편적 사역”의 문제를 제기하였다.²⁹⁾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칙령, “하나가 되기 위하여”(Ut Unum Sint)에서 이 문헌을 인용하면서 타교회 지도자들과 그 신학자들로 하여금 이 사역에 관하여 자신과 더불어 “인내심과 형제적 사랑에 기반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³⁰⁾ 이후의 논의에서, 타교회들에 속한 몇몇 회원들은 불일치의 분야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역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지역 교회들의 일치를 어떻게 배양할 것이며, 지역 교회들의 증언이 지닌 독특한 성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쟁점이 범교회적 차원에서 갖고 있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수위권적 사역이 지닌 본질과 그것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행사되어 온 구체적인 방식을 서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위권과 관련된 여하한 개인적인 사역이라도 그것이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을 통해 행사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57. 이 주제에 관한 의견수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몇몇 양자간의 대화를 통해 전체 기독교 공동체의 일치에 이바지하는 사역에 대해 일정한 가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수위

29) §31.2 of “Report of Section II: Confessing the One Faith to God’s Glory,” in T. F. Best and G. Gassmann, eds., *On the Way to Fuller Koinonia*(Geneva, WCC, 1994), 243.

30) John Paul II, *Ut Unum Sint*(London: Catholic Truth Society, 1995), §96. <베드로의 직제>(Petrine Ministry)이라는 제목이 붙은 보고서가 2001년도에 이르기까지 수위권에 관련된 직제의 문제를 다룬 에큐메니칼 대화들에 대한 종합과 분석에 더하여, 이 직제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대화 초청에 대해 보여준 반응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핵심적인 쟁점을 4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성서적 기초들, 하나님의 법(*De iure divino*: 그와 같은 직제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인가하는 문제), 보편 치리권(권세 내지 권력의 행사가 보편 교회 내에 미침), 그리고 교황의 무류성. 이 예비 보고서는 *Information Service*, N. 109 (2002/1-II), 29-42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전통에 속하였느냐에 따라 <베드로의 직제>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권과 관련된 보편적 직제의 필요성 내지는 심지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직제가 과연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의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³¹⁾ 이 문제에 관한 한 일정 교회 집단 간에 의견이 불일치할 뿐 아니라 심지어 몇몇 교회들 자체 안에도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사도 베드로 내지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의 보다 광범위한 일치를 위해 이바지하는 직제에 대한 증거가 신약성서 안에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에큐메니칼 대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직제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일치와 선교에 이바지하는 일정 형태의 직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하여 그들의 직제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상존하고 있다.

일치를 위한 보편적 직제

만약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대로 작금의 분열이 극복된다면, 보편적 차원에서 교회의 일치를 배양하고 진작시키는 직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또 행사될 것인가?

IV. 교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존재

A.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58. 예수께서 선교적 사명을 펼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라는 말씀에 가장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이자 최고의 태도는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은 모든 자녀, 즉 한번이라도 인류 역사 속에 태어났던 모든 여자와 남자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실로 전 창조세계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심으로 선포하셨고, 그의 능한 행적,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룩하신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 시작된 것인 바, 전 우주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31) 성공회-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보고서, “The Gift of Authority,” in *Growth in Agreement III*, 60-81와 정교회 로마가톨릭 간의 보고서, “The Ecclesiological and Canonical Consequences of the Sacramental Nature of the Church”를 볼 것.

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섬김 (diakonia)은 교회의 존재 자체에 속한다. <교회와 세계>라는 연구 문서는 이러한 섬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설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한다. 교회는 신비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되,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그 자체가 ‘신비’라고 불린다.)을 베풀고, 그리스도가 주신 삶의 새로움을 내보임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미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견함으로써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다.”¹⁾

59.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말과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다(막 16:15 참조). 복음화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분부에 순종하여 교회가 감당하는 최고의 과제에 속한다(마 28:18-20 참조). 교회는 성부께서 창조세계를 위하여 이루시는 화해와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부름받았다. 따라서 정의와 평화를 촉진하는 것은 복음화를 구성하는 한 측면이다.

60.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타종교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못지않게 잘 알고 있으며 타종교들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진리와 가치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자신의 청중들에 비할 때 “외인” 내지는 “타인”이 되는 이들에 대해 몸소 말씀하신 복음의 구절들을 상기하도록 한다(마 8:11-12, 눅 7:9, 13:28-30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차원 중 하나로서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며, 그리스도께서 몸소 요청하신 자비 안에서 그러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대

1) *Church and World: The Unity of the Church and the Renewal of Human Community* (Geneva: WCC, 1990), Chapter III, §21, 27.

2) 이 주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WCC 중앙위원회가 3개 분과 즉 ‘신앙과 직제,’ ‘종교 간 협력,’ ‘선교와 전도’ 위원회에 보낸 제안에 부응하여 연구한 결과물인 “Religious Plurality and Christian Self-Understanding”(2006)[웹사이트 주소: www.oikoumene.org/en/resources/%20documents/assembly/porto-alegre-2006/3-preparatory-and-background%20documents/religious-plurality-and-christian-self-understanding.html]를 볼 것. 이 성명서는 1989년 샌 앤토니오에서 열린 세계선교회복음전도위원회 대화에서 선교와 세계 종교들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에 뒤이은 것이다. 종교 간의 협력은,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주제들과 관련성이 깊으므로, 3개 단락에서 모두 언급될 것이다.

화하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지닌 품성함을 나눌 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 안에 존재하는 여하한 진리와 선함의 요소를 인정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경우, 그들이 가진 종교에 대해 언제나 적절한 존중을 표하지는 않았다. 복음화는 다른 신념체계를 지닌 이들을 항상 존중히 대해야 한다. 신약성서 안에서 계시된 진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충만함으로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중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³⁾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 가능성 및 종교 간의 대화와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 사이의 관련성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활발한] 성찰과 토론의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에큐메니칼 대응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몇몇 교회들 간에 심지어 교회들 자체 안에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신약성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가르치며(딤후전 2:4 참조), 동시에 예수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한다(딤후전 2:5, 행 4:12 참조). 성서의 이러한 구절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 가능성에 관한 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명시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그러한 견해가 구원을 위해서 신앙과 세례가 필수적임을 말하는 성서 구절들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교회의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지닌 활력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이러한 쟁점에 대

3) 유럽교회협의회(CEC)와 유럽주교단협의회(CCEE)가 발표한 “교회일치헌장(Charita Oecumenica)” 제 2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종교와 교회 소속을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공언하는 바이다. 이 말은 도덕적 압력이나 물질적 유혹을 통한 개종을 강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개종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교황청 종교 간 대화촉진평의회, WCC 및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2011년 1월 28일 인준한,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www.oiloumene.org]에서 접속 가능함을 볼 것.

한 보다 확대된 의견수렴에 도달하고 또한 말과 행위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B. 복음에 따른 도덕적 도전

61.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제자직은 도덕적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듯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총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롬 3:21-26, 갈 2:19-21 참조).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의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또한 신자들에게 도덕적으로 흠없는 생활을 요청하며 또 그것을 형성한다. 종교개혁의 시작과 더불어 분리되었던 두 공동체가 분열기에 서로 불일치했던 주된 논점인, 이신득의의 교리와 관련된 핵심 측면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것은 일치를 재수립함에 있어 상당한 중요성을 띠고 있다.⁴⁾ 이러한 믿음과 은총의 토대 위에서 도덕적 투신 및 공동의 행동이 가능하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것들이 교회의 삶과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고유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62.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창조주이자 계시자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동체가 시공간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감에 따라 그 형태를 갖추어 간다. 교회는 인류가 전체로서 수행하는 도덕적 투쟁들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뿐 아니라 타종교의 신자들과도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은 한 인격의 진정한 자기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의 도덕적 가치뿐 아니라 정의, 평화, 환경 보존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진작시켜야 한다. 이는 복음의 메시지가 인간 존재의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공동체적 측면에도 공히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이노니아에는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감화와 통찰에 근거하여 널리 공유되는 도덕적 가치도 포함된다. 현재의 분열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함께 나누는 친교 안에서 전진해온 만큼, 한 교회가 하는 일이 다른 교회들의 삶에도 영

4)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보고서,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Grand Rapids: Eerdmans, 2000)를 볼 것.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른 교회들이 행하는 윤리적 성찰 및 결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해 책임적으로 대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더 의식해가고 있다. 교회들이 상호 질문과 확증의 과정에 가담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잘 드러난다.

63. 도덕적인 쟁점과 관련된 긴장관계에 대해 교회는 늘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오늘날의 세계에서 목도되는 철학적·사회적·문화적 발전으로 다수의 도덕적 규범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문제들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면서 급기야 교회들 간의 일치에도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도덕적 문제들은 기독교의 인간 이해와 관련되므로, 도덕적 사고에 나타난 새로운 발전을 평가함에 있어 복음에 우선성이 부여된다.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들도 이따금씩 자신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되는 개인 내지 집단적 도덕성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더욱이, 어떤 이들은 도덕적 문제들이 본질상 교회-분열적 요인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실제로 교회-분열적 요인이 된다고 굳게 확신한다.

도덕적 문제들과 교회의 일치

다자간 및 양자간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에큐메니칼 대화 덕분에 기독교의 일치를 위한 도덕적 교리 및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띤 변수들의 개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⁵⁾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에큐메니칼 대화가 교회의 선교와 일치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도덕적 쟁점이 교회들의 의견수렴에 도전이 되고 있음을 이러한 대화를 통해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교회들이 상호 배려와 지원의 정신 안에서 이러한 쟁점을 탐구할 것을 요청한다.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태도를 이해하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5) 예컨대, 성공회-로마가톨릭 성명서 "Life in Christ: Morals, Communion and the Church," in *Growth in Agreement II*, 344-370와 WCC와 로마가톨릭교회 간의 공동연구위원회의 연구 문서, "The Ecumenical Dialogue on Moral Issues: Potential Sources of Common Witness or of Divisions"(1995), in *The Ecumenical Review* 48(2), April 1996, 143-154를 들 수 있다. 각 교회들 내의 도덕적 분별의 문제에 관한 최근의 작품들을 위해서는 Faith and Order Paper 215(2013) at www.oikoumene.org도 볼 것.

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별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이러한 분별의 과제에 함께 가담함으로써, 자신들의 섬김의 현장인 사회를 향하여 적절한 담화의 모델과 현명한 견해를 제공하게 될 것인가?

C. 사회 속에 있는 교회

64.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공감 어린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슬픈 문제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다. 세상의 변혁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친교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절대불변의 사랑이자 자비이자 정의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그들은 눈 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나환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맞아 주시며, 인간의 존엄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의 돌아보지 않던 권세자들에게 맞섰던 그분의 제자들로서 살아간다. 교회는 사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도와야 한다. 경우에 따라 목소리 없는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자신들이 지닌 신앙 때문에,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 내지는 AIDS의 만연과 같은 건강의 위협에 직면하여 나태하게 서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이 지상의 재화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경감되며 절대적인 빈곤이 언젠가 추방되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이루기 위한 사역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인류 가족을 괴롭히는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 예컨대 지구상의 부국과 빈국을 나누는 남북 문제와 같은 것들에 대해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왕”을 따르는 자들로서 특별히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들(경제적 불평등, 인종주의, 민족 내지 종교 간의 증오, 과도한 민족주의, 압제 및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하는 것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을 극복하고자 모색함으로써 평화를 옹호한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셨다(요 10:10 참조). 그를 따르는 이들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신자 개인 못지않게 교회도 감당해야 할 의무이다. 각각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특정한 구조를 지닌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마

련이다. 지금도 갈라진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한 분별작업을 함께할 수 있고 또 하고 있으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배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활동해오고 있다.⁶⁾ 그리스도인들은 타종교를 신봉하는 이들, 비종교인들과도 더불어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작시키게 될 것이다.

65. 여러 가지 역사적·문화적·인구학적 요소가 교회와 국가 및 교회와 사회 간의 관계를 조건 짓는다. 상황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교회가 지닌 공교회성의 바람직한 발현이 될 수 있다. 신자들의 시민사회의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세속 당국자들과 결탁하여 사악하고 부정의한 행위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부추긴 경우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두고 “지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마 5:13-16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해, 또한 그에 반하는 정책과 계획에는 반대하기 위해, 정치 및 경제 당국자들과의 투쟁도 불사해왔다. 이러한 투쟁에는 부정의한 구조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폭로하는 것과 그 구조들의 변혁을 위해 일하는 것뿐 아니라 정의와 평화, 환경의 보존 및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돌봄을 촉진하는 시민 세력들의 계획을 후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부정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전통에 설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을 하다 보면 그들은 박해와 고난에 노출되기 쉽다. 그리스도는 종의 신분을 가지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이들도 비슷한 운명을 각오해야 하리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교회의 증언(martyria)는 그리스도인 각자와 공동체 모두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며, 그 길은 순교(martyrdom)에까지 이를 수 있다(마 10:16-33 참조).

66. 교회는 모든 사회-경제적 계급으로 이루어진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6) 예를 들어, 개혁교회-로마가톨릭 문서, “The Church as Community of Common Witness to the Kingdom of God”를 볼 것. 이 문서의 제2장은 캐나다 원 거주민의 제반 권리, 남아프리카의 인종분리정책과 북아일랜드의 평화 문제 등에 관한 교회들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제3장은 이들 각 공동체에서 적용된 분별의 유형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PCPCU, *Information Service* N. 125(2007/III), 121-138, and *Reformed World* 57(2/3), June-September 2007, 105-207.

모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교회는 고난받는 이들의 처지에 동참하고 곤궁한 이들과 주변부화된 이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았으며 또한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받았다. 교회는 복음이 지닌 희망과 위로의 말을 선포하고, 공홀과 자비의 사역에 참여하면서(눅 4:18-19 참조) 또한 깨어진 인간 관계를 치유하고 화해시키고 증오와 소외로 인해 갈라진 이들을 화해케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후 5:18-21 참조).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에 참여하고자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돌보되(롬 8:20-22 참조), 지구를 남용하고 파괴하는 행위에 반대하고 창조세계와 인간 간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이 사명을 추구한다.

결론

67.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일치는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이 내려주시는 공동체적 친교의 은사 안에 존재한다. 코이노니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삶으로서, 신앙을 통한 일치, 성례전적 삶을 통한 일치, (사역과 선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섬김을 통한 일치 등,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방식 안에서 드러난다는 점에 대해 점차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 특히 성만찬의 거행은 현대에서 코이노니아가 뜻하는 바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범례로 작용하고 있다. 예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교 및 모든 시대와 장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경험한다. 그들은 집례자와 더불어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찬양과 감사를 드린 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고, 사명을 위해 파송된다.¹⁾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두 개의 제단이 있다고 말하였다. 하나는 교회 안에 있고, 다

1) 앞의 문장들은 2008년 3월, 독일 브레클룸(Brekum, Germany)에서 열린 '제9회 양자간 대화포럼'에서 나온 성명서의 내용을 대부분 반복하거나 고쳐쓴 것이다. 이 포럼에서 발표한 해당 성명서의 본문을 위해서는 *The Ecumenical Review* 61(3), October 2009, 343-347을 볼 것. 아울러 www.oikoumene.org/fileadmin/files/wcc-main/documents/p2/brekum-statement.pdf에서도 제공됨.

른 하나는 가난한 이들, 고난받는 이들, 곤경에 처한 이들 가운데 있다.²⁾ 교회는 예전을 통해 힘과 자양을 얻어서 세상을 향한 예언과 공황의 사역 속에서 또한 인간에 의해 야기된 온갖 형태의 부정의와 억압, 불신과 갈등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생명 살림 선교를 지속해나가야 한다.

68. 에큐메니칼 운동에 주어진 한 가지 축복은, 교회들이 아직 온전한 친교 안에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제자직의 여러 측면을 발견해 온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깨어짐과 분열의 상태는 그 제자들의 일치치를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회의 선교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 그리스도인들 간의 일치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그토록 긴급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친교를 통한 성장은 신자들의 교제 안에서 더 광범위하게 전개되며, 과거와 미래로 확대되어 성도들 간의 전반적인 교통을 포괄하기에 이른다.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루시는 코이노니아 안에 사로잡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새 창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계 21:1-4, 22:1-5 참조).

69.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과 더불어 종결된다(계 21:1-22:5 참조). 이러한 새 우주는 역사의 종말에 약속된 것이지만, 교회가 시대를 거처가는 순례의 길 위에서 믿음과 소망에 근거하여, 사랑과 예배 가운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고 외칠 때, 일종의 선취적인 방식으로 현재에도 이미 실재하게 되는 것이다.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사랑하듯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며(엡 5:25 참조), 하늘나라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열릴 때까지(계 19:7 참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의 선교적 사명을 자기의 교회와 더불어 나누시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신다.

2) St John Chrysostom, *Homily 50*, 3-4, in J. P. Migne, *Patrologia Graeca*, 58, 508-509.

역사적 기록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WCC는 자신을 가리켜 “성서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세주로 고백하며, 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공동체”라고 소개한다.¹⁾ 이러한 “공동의 소명”은 교회들로 하여금 아직도 그들을 갈라놓는 교회론적 쟁점에 대해 함께 의견수렴을 모색하고 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그 쟁점이란 “교회란 무엇인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상 안에서 교회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들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기독교 교회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대응해온 방식에서 그들이 교회 분열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살면서 신학을 전개해왔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따라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에서 교회론—교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두드러진 강조가 늘 있어왔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신앙과 직제에 관한 1927년 세계대회는 7가지 신학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중 하나가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²⁾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의 교회와 우리가 역사상 경험하는 갈라진 교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었다. 그 대회에서 발견한 내용에 대해 교회들이 보낸 반응에 기초하여,³⁾ 1937년 신앙과 직제에 관한 제2차 세계대회는 다음 회기의 세계대회에서

1) “Constitution and Rules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L. N. Rivera-Pagín, ed., *God in Your Grace: Official Report of the Nin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WCC, 2007), 448.

2) H. N. Bate, ed., *Faith and Order: Proceedings of the World Conference—Lausanne, August 3–21, 1927* (New York: George H. Doran Co., 1927), 특별히 463–466. *Reports of the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Lausanne Switzerland August 3 to 21, 1927*(Boston: Faith and Order Secretariat, 1928), 19–24.

3) 선별된 반응들을 위해서는 L. Dodgson, ed., *Convictions: A Selection from the Responses of the Churches to the Report of the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Held at Lausanne in 1927*(London: Student Christian Movement Press, 1934)을 볼 것.

다를 포괄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⁴⁾ 제2차 세계대회가 특별히 이 주제에만 천착하지는 않았지만, 5개 분과 중 2개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및 “성도들의 교제”와 같은 교회론의 핵심 이슈를 다루었다.⁵⁾ 1937년도 세계대회를 폐막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현존하는 분열의 이슈들 중 대부분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에 대한 인식은 갈라진 교회들 간의 친교로 결실을 맺게 되었고, 1948년 WCC의 결성으로 가시화되었다. 제1차 WCC 총회의 보고서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하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해 상호 불일치하는 두 가지 견해로 분열되어 있음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교회가 맡은 역할을 보다 능동적인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수동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차이였다.⁷⁾ 에큐메니칼 운동 내에 일어난 이와 같은 새롭고 복합적인 상황—교회들이 교회법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 갈라진 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적 그리스도론에 기반한 공동된 의견수렴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서로 각 교회 안에 분열 이전의 하나의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자취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하에서 1952년 WCC 산하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제3차 세계대회를 개최하였다.

제3차 세계대회를 위해 준비된 3가지 보고서 중 제일 처음 것이 에큐메니칼 교회론에 대한 비교연구를 전면적으로 활용한 것에 바탕을 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⁸⁾ 이러한 비교 연구를 활용한 결과물들은 『교회의 본질』(*The Nature*

4) L. Hodgson, ed., *The Second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Held at Edinburgh, August 3-18, 1937*(London: Student Christian Movement Press, 1938), 5.

5) 위의 책, 228-235, 236-238.

6) O. Tomkins, *The Church in the Purpose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Work of 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Geneva: Faith and Order, 1950), 34 참조.

7) “The Universal Church in God’s Design,” in W. A. Visser’t Hooft, ed., *The First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eld at Amsterdam August 22nd to September 4th, 1948*(London: SCM Press Ltd, 1949), 51-57 참조.

8) *The Church: A Report of a Theological Commission of the Faith and Order Commiss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Preparation for the Third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to Be Held at Lund, Sweden in 1952*(London: Faith and Order, 1951).

of the Church, 1952)이라는 책에 취합되었으며,⁹⁾ 이 결과물은 또다시 그 회의의 최종 보고서인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Christ and His Church) 제2장에 반영되었다.¹⁰⁾ 이것은 11년 후인 1963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개최된,¹¹⁾ 신앙과 직제위원회 제4차 세계대회 제1분과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제와 정확히 일치한다.¹²⁾

에큐메니칼 교회론에 대한 이러한 강조가 WCC의 역대 총회에서 채택한 일치에 대한 주요 성명서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1961년 뉴델리 총회 성명서는 “각 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all in each place)의 일치에 대한 것이었고,¹³⁾ 1975년 나이로비 총회 성명서는 “하나의 공의회적 공동체”(a conciliar fellowship)로서 하나의 교회에 대한 것이었으며,¹⁴⁾ 1991년 캔버라 총회 성명서는 코이노니아/친교로서 교회를 다루었고,¹⁵⁾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성명서는 “하나의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을 주제로 삼고 있다.¹⁶⁾ 이 모든 성명서는 교회론에 대한 의견 수렴과 아울러 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점진적인 단계를 표시한다.

“각 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성령께서 사도적 신앙과 성례전적 삶과 사역과 선

-
- 9) R. N. Flew, ed., *The Nature of the Church: Papers Presented to the Theological Commission Appointed by the Continuation Committee of the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London: SCM Press, 1952).
- 10) *Report of the Third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Lund, Sweden: August 15-28, 1952* (London: Faith and Order, 1952), 7-11.
- 11) *Christ and the Church: Report of the Theological Commission for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Geneva: WCC, 1963).
- 12) P. C. Rodger and L. Vischer, eds.,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Montreal, 1963*(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4), 41-49.
- 13) W. A. Visser't Hooft, ed., *The New Delhi Report: The Third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61* (London: SCM Press, 1962), 116.
- 14) D. M. Paton, ed., *Breaking Barriers: Nairobi 1975—The Official Report of the Fif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Nairobi, 23 November-10 December, 1975*(London-Grand Rapids: SPCK-Eerdmans, 1976), 60.
- 15) M. Kinnamon, ed., *Signs of the Spirit: Official Report Seventh Assembly—Canberra, Australia, 7-20 February 1991* (Geneva-Grand Rapids: WCC- Eerdmans, 1991), 172-174.
- 16) L. N. Rivera-Pagán, ed., *God, in your Grace: Official Report of the Nin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WCC, 2007), 255-261.

교 안에 있는 온전한 가시적 일치에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에큐메니칼 비전에 의해 촉발되어,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1961년에 열린 뉴델리 총회 이후로 여러 해 동안 <세례, 성만찬, 직제>라는 의견수렴 문서의 작성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⁷⁾

1993년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열린 제5차 세계대회는 교회론에 대한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성찰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앙과 삶과 증언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향하여”(Towards Koinonia in Faith, Life and Witness)를 주제로 모인 이 세계대회는 여러 요인에 의해 그 형태가 결정되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세례, 성만찬, 직제>에 대해 보내준 여러 교회들의 반응이 그러한 공식 반응을 담은 6권 분량의 문서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의 해석에 대한 것이었다.¹⁸⁾ <세례, 성만찬, 직제>에 대하여 186개 교회가 보내준 반응은 면밀히 검토된 후,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주요 교회론적 주제들로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정리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 안에서 교회가 맡은 역할”, “코이노니아, 하나님 말씀의 산물(creatura verbi)로서의 교회”,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신비 내지 성례전으로서의 교회”, “순례자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적 표징이자 종으로서의 교회.”¹⁹⁾ 1993년 대회의 형태를 결정한 두 번째 요인으로는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진행한 “오늘에 있어 사도적 신앙에 대한 공동의 표현을 향하여”(Towards the Common Expression of the Apostolic Faith Today)라는 제하의 연구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물을 꼽을 수 있다.²⁰⁾ 이것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말하는 바 교회에 대하여 선언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그 전반적인 교리적 내용에 있어서 교회들 간 고무적인 의견수렴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번째 요인으로는 “교회의 일치와 인간의 공동체”에

17)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Geneva: WCC, 1982).

18) *Churches Respond to BEM, Geneva, WCC, 1986-1988, volumes I-VI* 참조.

19) *Baptism, Eucharist & Ministry, 1982-1990: Report on the Process and Responses*(Geneva: WCC, 1990), 147-151 참조.

20) *Confessing the One Faith: An Ecumenical Explication of the Apostolic Faith as It Is Confessed in 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 (381)*, Faith and Order Paper 153(Geneva-Eugene: WCC-Wipf & Stock, 2010) 참조.

관한 연구과정을 들 수 있다.²¹⁾ 여기서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표징이자 도구로서 교회가 지닌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으로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에 대한 공의회적 과정에 따라 제기되는 교회론적 도전을 꼽을 수 있다.²²⁾ 아울러, [교회들 사이에] 양자간의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친교의 교회론이 점차로 대두하게 되었고, 이로써 새로운 에큐메니칼 계기가 만들어졌다. 1980년대에 진행된 이러한 운동들은 1989년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 수렴되었고, 그것은 당시 “교회의 본질과 선교—교회론에 대한 에큐메니칼 관점”이라고 불린 새로운 연구 과제를 출범시켰다.²³⁾ 제5차 세계대회 주제인 “신앙과 삶과 증언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향하여”는 바로 1980년대에 진행된 이와 같은 모든 연구과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는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교회에 대하여 장구한 시기에 걸쳐 성찰해온 이러한 궤적 안에서 자리매김됨과 동시에, 1993년 제5차 세계대회에서 주어진 신선한 추동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수년 동안 연구와 대화를 진행한 후, 그 교회론 연구의 첫 결과가 1998년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²⁴⁾ 이 문서가 지닌 잠정적인 지위는 그 부제에서 “공동의 진술을 향한 도상에서의 한 단계”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코이노니

21) *Church and World: The Unity of the Church and the Renewal of Human Community, Faith and Order Paper 151*(Geneva: WCC, 1990) 참조.

22) “Final Document: Entering into Covenant Solidarity for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in D. P. Niles, ed., *Between the Flood and the Rainbow: Interpreting the Conciliar Process of Mutual Commitment (Covenant) to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Geneva: WCC, 1992), 164-190; T. F. Best & M. Robra, eds., *Ecclesiology and Ethics: Ecumenical Ethical Engagement, Moral Formation, and the Nature of the Church*(Geneva: WCC, 1997) 참조.

23) G. Gassmann,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hurch: Ecumenical Perspectives,” in T. F. Best, ed., *Faith and Order 1985-1989: The Commission Meeting at Budapest 1989*(Geneva: WCC, 1990), 특별히. 202-204, 219 참조.

24)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hurch: A Stage on the Way to a Common Statement* (Geneva: WCC, 1998).

아 안에서 삶의 삶,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섬김”, “우리의 소명을 따라가기: 견해를 수렴하여 상호 인정으로 나아가기.” 이 문서에 대한 반응이 교회, 에큐메니칼 기구, 지역 교회협의회, 학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답지하였다. 대부분 우호적인 감사의 논평이 건설적 비판에 의해 보완되어 있었다. 예를 들자면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는 보다 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보인다는 것이었다. 즉 친교로서의 교회에 대한 주제가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다루는 장과 분리되어 취급될 수 있는가 하는 지적이었다. 더 나아가, 몇 가지 주제들이 누락된 것이 지적되었다. 예컨대, 교도권에 대한 단락이 없었고 선교에 대한 주제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산티아고 세계대회는 “기독교 일치를 위한 보편적 직제의 문제에 관한 연구를 요청했지만,²⁵⁾ 이 주제는 그 문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에큐메니칼 운동에의 투신에 대한 그의 1995년 회칙 서한, “하나가 되기 위하여”에서, 로마 감독(주교)의 직제에 관한 대화를 제안하면서,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산티아고 대회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인용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²⁶⁾

각처에서 반응이 답지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한편,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교회론을 다룬 그 문서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교회의 본질과 선교>라는 제목이 붙은 새로운 초안을 내어놓았고,²⁷⁾ 그것은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2006년 WCC 총회에 제출되었다. 다양한 반응으로부터 추려진 제안을 담아서, 그 문서는 다음과 같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공동체적 친교의 삶”,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존재.” 제1장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언급한 성서의 자료들 다수를 공동체적 친교(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교회의 사명에 관한 성서의 통

25) T. F. Best and G. Gassmann, eds., *On the Way to Fuller Koinonia: Official Report of the Fif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Geneva: WCC, 1994), 243.

26) *Encyclical Letter Ut Unum Sint of the Holy Father, John Paul II, on Commitment to Ecumenism*(Rome: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5), §89.

27)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hurch: A Stage on the Way to a Common Statement, Faith and Order Paper 198*(Geneva: WCC, 2005).

찰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의 내용과 통합하였다. 역사를 다루는 제2장에서는 현재 분열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괴롭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조명하고 있다. 다양성이 어떻게 일치성과 조화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다양성을 이루는 요인은 무엇인가? 교회들은 ‘지역 교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며 ‘지역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는 쟁점은 무엇인가? 제3장은 교회들 간의 공동체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들, 즉 사도적 신앙, 세례, 성만찬, 감동직, 공의회 및 시노드에 대해 조명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편적인 수위권과 권위에 대한 주제도 포함되었다. 마지막 장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섬김, 즉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억압당하는 이들을 옹호하며, 복음에 따른 도덕적 메시지에 대해 증언하고, 정의와 평화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발맞추어 인간적인 사회를 진흥시키는 활동 등에 대해 간략하게 탐구하고 있다.

교회론을 다루는 이 개정된 문서도 “공동의 진술을 향한 도상에서의 한 단계”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이 역시 여러 교회로부터 반응을 얻기 위해 발송되었다. 80편 이상의 반응이 도착하였는데, 그중 교회들이 보낸 반응은 30여 편에 불과하였다. 교회와 학문 기관과 에큐메니칼 기구 및 특별히 선교단체들이 보낸 대부분의 반응은 교회의 선교에 대한 주제가 제목에 들어 있을 정도로 더 크게 부각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다른 논평은 “본질”과 “선교”라는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이 교회는 그 본질상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 관한 것이었다. 교회론에 관한 실무단이 주도하는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한 반응들의 평가 작업을 돕기 위해, 신앙과 직제위원회 간사들은 각각의 반응에 대하여 일차적인 분석과 상세한 요약을 준비하였다.

<교회의 본질과 선교>를 평가함에 있어 세 단계의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 첫째로 신앙과 직제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양한 교회들을 대표하는 120명의 회원들과 더불어 2009년 크레테에서 열렸다. 이 회합에는 처음으로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다수 출석하였으며,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3개 연구 과제, 그중에서도 특히 교회론 연구에 투입된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회의의 구조를 조정하였다. 이 회의를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한 평가가 진

행되었다.²⁸⁾ 전체회의의 주요 방침은 그 문서의 분량을 줄이고, 그 내용을 보다 더 상황에 맞게 개정하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삶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광범위한 독자층에게 더 널리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12개의 분과 그룹으로 나누어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담긴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문서에 대한 상세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²⁹⁾

두 번째로, 2010년 6월 아르메니아의 성지 에치미아친(Holy Etchmiadzin)에서 신앙과 직제상임위원회가 모여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해 보내준 여러 반응과 크레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 문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최종 수정판 작업을 시작할 적기가 되었음을 의결하였다. 성공회, 가톨릭, 루터교, 감리교, 정교회 및 개혁신교회 출신의 신학자들로 구성된 초안위원회가 임명되었고, 감리교와 정교회 전통으로부터 2명의 공동 의장이 호선되었다.

세 번째로, 위원회는 교회들의 반응을 취합하는 과정 중에 중대한 공백이 있었음을 감지하였으니, 그때까지도 동방정교회 및 오리엔탈 정교회(Eastern and Oriental Orthodox churches)로부터 괄목할 만한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콘스탄짜야 수좌주교관구(Holy Metropolitanate of Constantia)에 속한 키프러스의 하기야 나파(Aghia Napa)에서 정교회 간 회담이 개최되었고, 거기에 10개의 오리엔탈 정교회와 3개의 동양정교회를 대표하는 40인의 신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거기서 제안하는 주요 내용은 세례, 성만찬 및 직제에 관한 자료들을 교회의 삶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발제에 더 분명하게 통합시키라는 것이었다. 이 정교회 간 회담과 거기서 나온 보고서는 교회론에 관한 실무단의 차기 회의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문서의 작성과정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교회들이 보낸 반응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이 2010년 11월 말 제네바에서 모인 초안위원회의 첫번 모임에서 계속되었다. 그 과정은 2011년 3월 초에 있었던 정교회 간 회담 이후에 신선한 추동력을 얻었다. 3월 말에 미국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서

28) John Gibaut, ed., *Called to Be the One Church: Faith and Order at Crete*(Geneva: WCC, 2012), 147-193 참조.

29) *ibid.*, 207-231 참조.

열린 교회론에 관한 실무단 모임에서는 이 문서의 새로운 초안이 작성되어 2011년 7월 이탈리아의 가자다에서 있었던 신앙과 직제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위원들로부터 많은 논평이 있었으니, 그들 대부분은 상당히 우호적이면서도 그 문서가 구체적으로는 양자 간에 의견 일치를 본 합의문들과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최근에 간행한 연구 문헌인 <하나의 세례: 상호 인정을 향하여>(One Baptism: Towards Mutual Recognition) 등에서 나타난, 특별히 직제의 분야에 관해서, 보다 진전된 의견수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³⁰⁾

이러한 요청은 몇 가지 어귀들을 강조하고 거기에 주석들을 보강하여 [지금껏] 의견수렴을 지향하는 가운데 진전된 성과를 입증하는 식으로 처리되었다. 뒤이어서, 2011년 12월 스위스의 보세이 에큐메니칼연구소에서 모인 초안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판본을 준비하였다. 초안위원회는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의 간사들이 보내준 내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작성된 문서가 외부의 에큐메니칼 전문가 4인 앞으로 송부되어 새로운 검토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보내온 제안을 초안위원회가 평가하고 반영하여, 2012년 3월 말 독일의 프라이징에서 열린 교회론에 관한 실무단 모임에 제출하였다. 프라이징 모임에서 나온, 이 문서에 대한 논의와 반응에 기초하여, 교회론에 관한 실무단은 신앙과 직제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최종안에 합의하게 되었다.

2012년 6월 21일 최종 본문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는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라는 제목과 더불어 만장일치로 그것을 하나의 의견수렴 문서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문서는 보다 진전된 공동의 선언문을 향한 도상의 한 단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전의 판본들—<교회의 본질과 목적> 및 <교회의 본질과 선교>—이 추구해온 공동 선언문인 것이다.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는 교회에 대하여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수행해온 성찰의 한 단계를 완결지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수행해온 성찰이 일정 수준의 성숙도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 문서가 1982년에 나온 <세례, 성만찬, 직

30) *One Baptism: Towards Mutual Recognition*(Geneva: WCC, 2011).

제>와 동급의 지위 및 성격을 지니는 하나의 의견수렴 문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문서는 이대로 각 교회들에 보내져서 교회들이 서로 더불어 자신들의 교회론적 의견수렴을 시급하고 분별하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셨던 바 일치의 현현을 향한 교회들의 진일보한 순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의 평가 기준으로 이용될 것이다. WCC 중앙위원회는 2012년 9월 초 그리스의 크레타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를 수용하여 그것을 회원 교회들의 연구와 공식 반응을 위한 문서로 추천하였다.